



2021
JANUARY + FEBRUARY

전기로 만드는 행복 **서북공감**



해안가 건너 언덕 위로

붉고 동그란 해가

손에 잡힐 듯 떠올랐다.

‘우와’ 하는 탄성이 절로 나온다.

충남 당진 왜목마을 일출 광경이다.

바다와 언덕,

마침 살짝 낀 구름으로

일출은 더욱 드라마틱하다.



WP : Live

04 신년사

김병숙 한국서부발전 사장 신년사

06 Mission

「KOWEPO Vision 2030」 중장기 가치체계 재정립

08 Innovation

2020 제2회 대한민국 사회혁신 체인지메이커 시상식

12 New Year

재해예방 활성화 업무협약 및 안전실천다짐대회
평택발전본부

14 Together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한국서부발전 아이디어뱅크
사회적가치추진실 윤리준법부

18 Co-Work

자연과 사람이 빛으로 하나되는 밝은 세상을 꿈꾸다
(주)비전테크

20 Time slip

<에너지家>를 통해 10년의 세월을 돌아보다



힘내라 대한민국

한국서부발전 사보 서부공감 2021년 1+2월호(통권 제99호)

발행인 김병숙 편집인 김종균

기획 정래현, 권태환, 김예지

발행일 2021년 1월 15일

발행처 한국서부발전(주) www.iwest.co.kr

사회적가치추진실 미디어협력부 (041-400-1298)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중앙로 285 (32140)

기획 · 디자인 웹브라이트 (070-4214-8388)

인쇄 (사)한국장애인문인복지후원회 (02-2271-2526)

※ 본 사보는 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 · 사회적기업에서 인쇄 · 발간하고,
환경보호를 위해 친환경 재생종이를 사용합니다.

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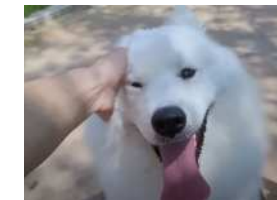
38



44



52



서부공감 Vol. 99

WP : Eco

26 Focus

전력 산업의 미래, 과연 어떻게 변할까

30 Eco friendly

재활용 가족으로 신발 제작하는
사회적 기업 아나키아

34 Campaign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한 운동, 플라이트 세임

36 Animal

재두루미와 노랑부리저어새

38 Plant

공기 정화 능력이 뛰어난 식물

40 Book

작지만 소중한 친환경 활동을 도와주는 도서

WP : Life

44 Travel

당진 왜목마을 일출 & 서산 해미읍성

50 Movie & Popcorn

오프닝이 인상적인 영화

52 YouTube

귀여움 한도 초과, 랜선 슈퍼스타 반려 동물

54 Health

슬기로운 비타민 생활

56 Safety Day

문화재 방재의 날

58 숨은 위험 찾기

사무실 감염병 예방법

60 NEWS

한국서부발전 뉴스

63 Event

“새로운 시대를 여는 도약의 한 해가 되길 기대하며”



사랑하는 서부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희망찬 새해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신축년(辛丑年) 재해를 맞아,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올해 우리에게 놓여 있는 화두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해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 유례없는 팬데믹 상황에도 불구하고, 서부인 모두의 헌신적인 노력을 통해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태안사고의 여파가 지속되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정부경영평가 B등급을 이끌어 내고, 신뢰와 공감의 기업문화 구축을 위한 노력이 청렴도 평가에까지 긍정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아울러 구미 복합 발전사업허가 취득과 공주, 여수 등 신규 복합 사업의 본격 추진으로 전국 단위 사업소 시대의 서막을 알렸습니다. 또한 바람직한 기업문화 형성의 이정표로서, 미션과 비전을 새롭게 정립한 희망적인 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각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이어지고, 3년 연속으로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는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전력수요 감소와 국제유가 하락 등으로 태안화력의 급전순위가 급락하여, 그간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설비운영 방식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새해에는 한국형 가스터빈을 적용한 김포열병합의 본격적인 건설이 시작되고, 추가적인 태안화력 대체 복합 사업도 가시화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내부의 활력과 희망적인 메시지가 조직 전반에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력사업 분야의 중장기적 체질개선과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 이행을 강하게 요구하는 대외여건은 한층 심화될 것입니다.

올해는, 지난해 정부에서 발표한 그린뉴딜 정책을 매개로 2050년 탄소중립을 향한 국가 전략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코로나19의 성공적인 극복과 심각한 타격을 입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 사회적, 국민적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신축년(辛丑年) 새해를 맞아, 우리를 둘러싼 경영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나아가 역사적인 도약을 시작할 지혜와 동력을 모으기 위해 다음 세 가지를 올해의 화두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산업지형의 구조적인 전환에 철저하게
대비해야 합니다.

지난 20년간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해 왔던 석탄화력은 과감한 감축이 불가피하게 되었고, 화석연료 기반 발전사업의 성장 가능성은 점차 희박해지고 있습니다. 석탄발전총량제를 시작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전력거래 시장제도가 근본적으로 변화될 전망입니다.

따라서, 경제적인 연료수급과 효율적인 설비운영 등 급전경쟁력을 제고하는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전력거래 시장제도 변화에 대비하여 내부역량과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강화해야 합니다.

더불어, 폐지가 예정된 노후설비 대체사업 확보에 조직의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미래성장동력을 지속적으로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신성장사업에 대한 도전적 성찰입니다.

지난해 우리는 열정적인 사업개발을 통해 창사 이래 최대의 신재생 설비를 확보했고, 북유럽 등 선진시장으로 해외사업의 영역을 확장했습니다. 올해는 이러한 성과를 교두보로 사업 추진을 보다 가속화하여 신재생, 해외사업을 진정한 수익창출원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스마트플랜트, 수소에너지 등 디지털, 그린뉴딜과 연계한 신사업을 본격화하기 위해 투자와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투철한 개척정신으로 미래의 먹거리가 될 신사업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랍니다.

끝으로,
상생의 사회적 가치 구현에 더욱 매진해야 합니다.

사회적 관심이 집중될 경제위기 극복에 동참하는 것은, 우리에게 상생의 가치를 확산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설비 국산화, 체인지메이커와 같이 회사의 이미지를 바꿀 서부 고유의 사회적 가치 사업을 새롭게 창출해야 합니다.

창의적인 사고를 기반으로 한 차별화된 아이템 발굴과 상생협력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특정내용이나 범위를 한정하지 않고, 범사회적으로 다각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과 성과는, 향후 우리에게 지속적인 수익창출과 성장을 위한 탄탄한 사회적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서부가족 여러분!

2021년은 사창립 20주년인 해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냉철한 현실 인식과 담대한 도전정신입니다. “거센 바람을 타고 만 리의 물결을 헤쳐 나간다.”는 승풍파랑(乘風破浪)의 자세로 당면한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나가길 바랍니다.

‘새로운 시대를 여는 친환경 에너지 글로벌 리더’ 그 비전을 향해 역사적 도약을 내딛는 한 해로 만들기 위하여, 서부인 모두가 주인이 되어 힘을 모아주길 당부합니다.

서부가족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이 충만한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2021. 1. 4.

사 장 김 병 속

‘인간, 기술, 환경의 조화로 최고의 에너지를 창출한다’는 기업이념, ‘국민 행복을 창조하는 에너지 기업’이라는 비전으로 쉽 없이 달려온 한국서부발전. 하지만 그동안 급격하게 변화된 기업 경영 환경에 따라 가치체계를 정비하고 기업 문화를 개선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한국서부발전은 이를 적극 반영해 「KOWEPO Vision 2030」 중장기 가치체계를 재정립했다. 이번 가치체계 재정립의 추진 배경과 주요 내용을 알아보자.

「KOWEPO Vision 2030」 중장기 가치체계 재정립

새로운 시대를 여는 친환경 에너지 글로벌 리더

급격히 변화된 경영 환경 반영

가치체계를 재정립하기 위해서 선행된 것은 급변하는 기업 경영 환경에 대한 분석이다. 개발과 성장을 중시하던 기업 경영의 기존 가치가 흔들리고 환경·안전을 비롯한 사회적 가치 그리고 개인의 만족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대두됐다. 지난 1년간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코로나19로 경기 침체, 유가 하락, 경제 성장을 둔화 전망과 더불어 비대면 모임, 스마트 오피스 등이 주요 사회 이슈로 떠오른 것은 물론이다.

정부의 그린뉴딜 사업 추진과 전 세계적인 화두로 떠오른 친환경 저탄소 정책 또한 간과할 수 없는 요소다. 경제적 가치를 강조하던 정부 정책은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안전과 친환경적인 공공성과를 추구하는 것과 동시에 혁신을 통한 성과를 강조하는 것이다.

전력 사업 전반에서는 디지털 기술이 적용될 것이며 에너지 전환에 따른 연구 사업과 투자도 강화되고 있다. 따라서 탄소 배출 제로, 탈탄소 발전을 지향하고 친환경 전원 구성도 강화될 것이다. 소비자 주변에서는 소규모 발전 설비와 생산 방식이 확대될 것이라고 예측된다.

한국서부발전은 이러한 경영 환경과 이슈를 반영하기로 결정했다. 먼저



근본적인 설립 목적을 명확히하고 구성원에게 사명감을 부여하기 위해 ‘미션을 재정립’했다. 또한 도전적이고 실현가능한 구체적 목표와 명확한 미래상을 제시하기 위해 ‘비전을 재정립’하여 지속가능한 성장을 달성하는 공기업으로 자리를 굳건히 하려한다.

국내외 사례 분석 및 조직 구성원의 의견 수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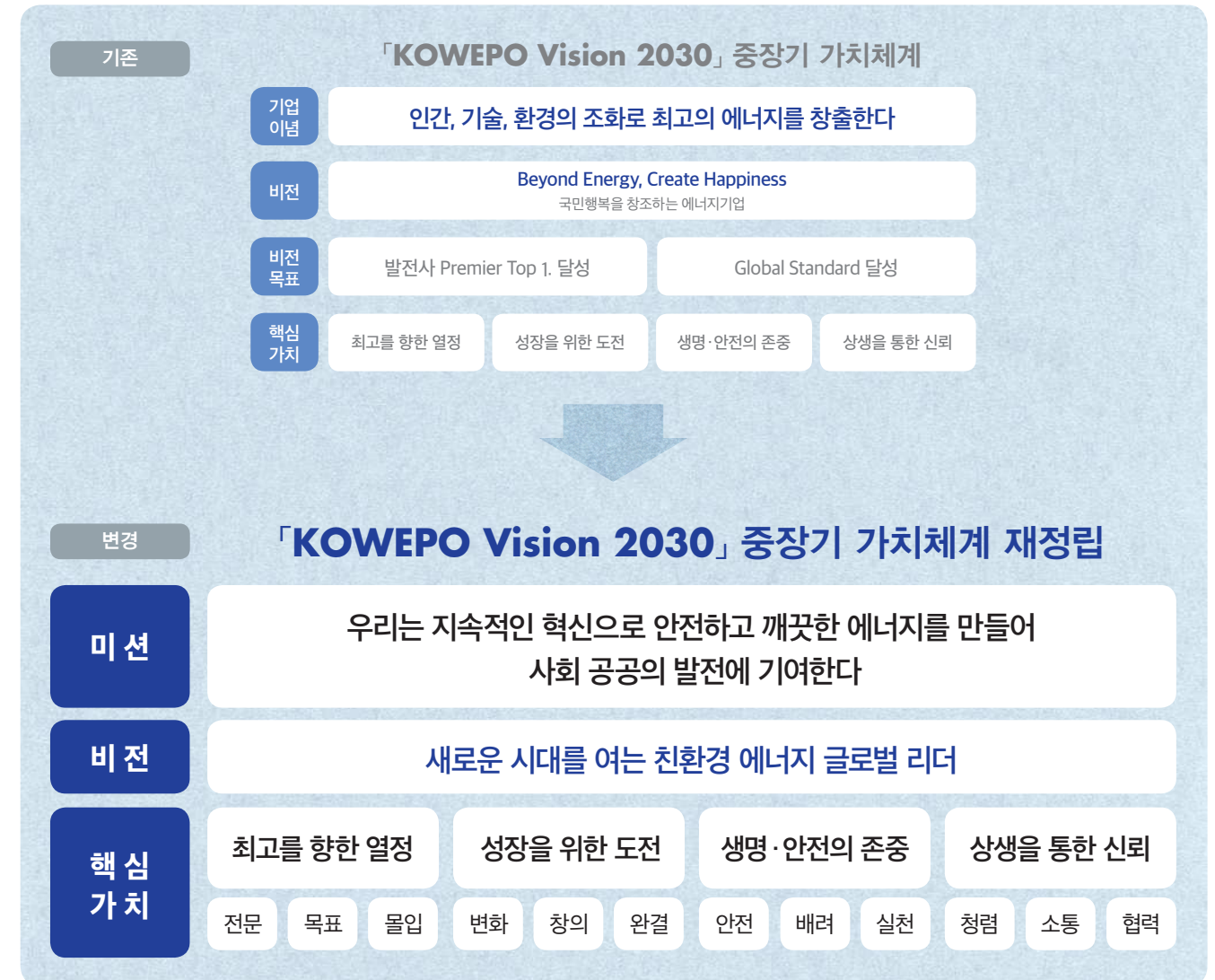
이번 가치체계 재정립은 한국서부발전이 2020년 6월부터 11월까지 오랜 시간 동안 공들여 수많은 미션과 비전(안)을 도출해 만들어낸 결과다. 가치체계 재정립을 위한 범위와 방향을 설정한 다음, 직원들과 함께 2차에 걸친 워크숍을 진행하고,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았다. 또한 한국서부발전 직원 700여 명이 참여한 설문조사(2020년 10월 8일~13일)를 진행했다. 다양한 입장을 담아낼 수 있도록 고민한 흔적이 역력하다.

그렇게 재정립된 미션은 ‘우리는 지속적인 혁신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를 만들어 사회 공공의 발전에 기여한다’이다. 새로운 비전은 ‘새로운 시대를 여는 친환경 에너지 글로벌 리더’이다. 공기업으로서 친환경 에너지 전환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실현하고, 중장기 목표 달성과 미래상을 구

현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 에너지 사업의 변화 방향과 글로벌 기업으로서 미래 에너지 산업을 선도하려는 목표도 반영됐다.

핵심 가치의 정의도 한결 명확해졌다.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로 성장하며(최고를 향한 열정), 그 성장과 변화를 위해 업무 관행을 개선하는 것(성장을 위한 도전)이다. 또한 사람 중심의 가치를 인식하고(생명·안

전의 존중)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투명하고 진정성 있는 소통을 위해 신뢰를 형성한다(상생을 통한 신뢰). 4대 핵심가치가 지향하는 바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이를 뒷받침할 하위요소와 행동규범을 마련하여 가치내용을 구체화한 핵심 가치 정의다. 고심 끝에 재정립된 가치체계 아래 친환경 에너지 글로벌 리더로 발돋움할 한국서부발전의 미래가 기대된다.



'2020 대한민국 사회혁신 체인지메이커' 시상식이 지난 12월 3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렸다. 사회혁신 활동을 통해 공공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한 인물을 선발하는 이번 시상식에는 김병숙 한국서부발전 사장을 비롯해 서상목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 정무성 송실사이버대학교 총장 등이 참석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한국서부발전 사회공헌 프로그램에 힘을 보탰다.

2020 제2회 대한민국 사회혁신 체인지메이커 시상식 개최

Changemaker 2020



1

1 2020 대한민국 사회혁신 체인지메이커 수상자와 김병숙 한국서부발전 사장, 서상목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 정무성 송실사이버대학교 총장.

2 유스 리빙랩 프로젝트 멘토 위촉.



체인지메이커(Changemaker)란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 중 하나를 자신의 문제로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혁신적인 솔루션으로 지속가능한 변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을 의미한다. 이번 시상식에 선정된 체인지메이커는 경제, 문화, 환경, 복지, 교육과 특별상을 포함하여 총 7팀이다. 이들에게는 상금 1,000만 원, 300만 원 상당의 금메달과 표창장 및 그리고 해외 연수 특전이 주어진다.

경제 (주)업드림코리아 이지웅 대표

이지웅 대표는 형편이 어려운 여학생들이 갈창을 생리대로 사용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기업인 (주)업드림코리아를 설립했다. 이 대표는 클라우드 펀딩을 통해 약 1억 3,000만 원을 모아 착한 생리대 '산들산들'을 제작했다. 소비자가 생리대 한 팩을 구매하면 한 팩이 저소득층 여학생의 집으로 배송되는 방식이다. 현재 약 2억 원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했다.

문화 (주)박피디와 황배우 박지연 & 황서윤 공동 대표

박지연, 황서윤 공동 대표는 암(Cancer)과 엔터테인먼트(Entertainment)를 접목한 '캔서테인먼트'로 암을 긍정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과 제품 그리고 콘텐츠를 만든다. 이들은 암 투병 경험을 토대로 암 환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팟캐스트, 뮤지컬, 토크 콘서트 등 다양한 콘텐츠를 생산하고 있다. 단순한 투병 후기를 나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점을 인정받아 올해 체인지메이커로 선정됐다.

Changemaker 2020

환경 보틀팩토리 정다운 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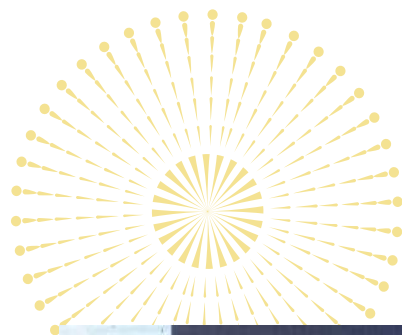
정다운 대표는 6개월 동안 쓰레기 수거차에 동승하며 조사한 경험을 토대로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카페 '보틀팩토리'를 창업했다. 보틀팩토리는 텀블러 대여 및 세척 서비스, 지역 기반의 제로웨이스트 페스티벌을 기획 및 운영한다. 이 외에 일회용품 문제의 해결책을 모색하는 일회용 플라스틱 관련 'N개의 공론장', 소비자가 직업 용기를 가져와 채우는 장터 '채우징' 등 다년간 일회용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행사를 개최하며 적극적으로 활동해왔다.

복지 (주)브라더스키퍼 김성민 대표

아동보육시설에서 생활하던 청소년은 정부 보호 기간이 끝나는 만 18세가 되면 퇴소해야 한다. 이렇게 발생하는 보호종료아동이 매년 2,000여명이다. 실제 보육원 출신인 김성민 대표는 이런 청소년을 돕기 위해 직접 사회적 기업인 (주)브라더스키퍼를 설립했다. 그는 보호종료아동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벽면 녹화 사업을 중심으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교육 딕션 전성국 대표

청각장애 2급인 전성국 대표는 평소 소통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다 직접 청각장애인의 사회적 소통을 확대하는 기업인 딕션을 설립했다. 그가 개발한 서비스 '바름'엔 청각장애인에게 올바른 발음을 알려주고 개인의 발음을 분석하는 자체 음성 인식 기술이 적용됐다. 청각장애인의 듣기 능력을 향상시키는 이 기술 덕분에 많은 청각장애인이 자립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 1 정무성 서울사이버대학교 총장.
- 2 서상목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
- 3 2019 수상자 계효석 LAR 대표의 우수사례 발표.
- 4 김병숙 한국서부발전 사장.

교육 거마도 윤희정 대표

어느 지역이나 빛과 그림자가 공존하게 마련이다. 하지만 소외 지역을 방치할 경우 각종 범죄 발생 가능성도 높아지기 때문에 지속적인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 '거친녀석들의 마음온도'라는 뜻의 거마도 윤희정 대표는 이런 필요성에 공감했다. 그는 서울 왕십리를 기반으로 열악한 환경에 처한 청소년의 창업을 지원하고, 직업 교육을 통해 자립을 돕는 외식업 기반의 예비 사회적 기업을 설립했다. 재래시장과 청년의 협업을 이끌어낸 덕분에 지역 경제에 큰 힘을 실어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별상 인천의료원 김진웅 감염내과장

올해 달라진 점이 있다면 특별상 부문 신설이다. 수상자는 코로나19 검사에 드라이브 스루 방식을 최초로 제안한 인천의료원 김진웅 감염내과장이다. 그는 코로나19 국내 1번 확진자를 완치시킨 주치의로 보다 빠른 확진자 선별을 위해 선별 진료소와 드라이브 스루 검사 방식을 제안했다. 김 감염내과장은 2013년 메르스가 국내에 유입되기 수개월 전에 신종 감염병 대응 모의훈련을 진행하기도 했다. 덕분에 실제로 국내에 메르스 의심 환자가 발생했을 때 빠른 대처를 할 수 있었다. 그는 2년 전 생물 테러 훈련 당시 약품 배분 업무 경험을 토대로 드라이브 스루 검사 방식을 제안했고,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에서 이 방식을 벤치마킹하면서 K-방역의 위상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김병숙 한국서부발전 사장은 이번 시상식에서 “현재 우리 사회는 심화된 개인주의와 배타주의로 공동체 의식이 약화되고 있으며, 아울러 국민들이 체감하는 삶의 질 수준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며, “체인지메이커는 기술혁신과 더불어 사회혁신도 중요하다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사회혁신을 가속화하는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리라고 생각한다”고 치하했다.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체인지메이커가 있는 한, 대한민국의 희망 온도는 한결 따뜻해질 것이다. 앞으로도 한국서부발전은 우리사회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체인지메이커를 발굴·격려하고 차세대 사회혁신가 양성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지난 1월 7일, 한국서부발전과 안전전문기관인 대한산업안전협회 경기남부지회는 평택발전본부에서 재해 예방을 활성화하기 위한 공동협력 협약을 맺었다. 새해에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각 사업소의 무재해·무사고를 달성하기 위한 굳은 결의를 다지는 자리였다. 보다 안전한 현장을 위한 안전실천다짐대회도 진행됐다. '새로운 시대를 여는 친환경 에너지 글로벌 리더'로 거듭나기 위한 한국서부발전의 2021년 첫걸음을 소개한다.

※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언택트 화상 협약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2021년 안전문화 확산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공동협력 협약(MOU) 및 안전실천다짐대회

평택 발전본부



평택발전본부와 대한산업안전협회의 공동협력 협약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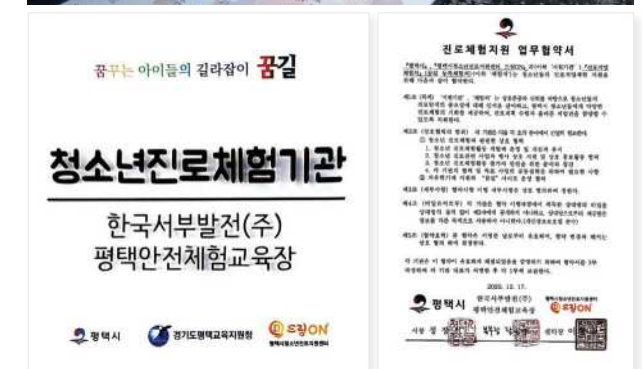
두 기관의 업무 협약식에 앞서 대한산업안전협회는 평택발전본부에 무재해 목표 7배 달성 인증패를 화상으로 전달했다. 이번 인증은 2008년 1월 11일부터 2020년 11월 11일까지 근로자와 사업주가 함께 산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펼친 무재해 운동의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이어서 열린 '안전문화 확산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공동협력 협약식'은 장광규 평택발전본부장과 전용제 대한산업안전협회 경기남부지회장이 협약에 1차로 서명하고 화상 전송한 후, 2차로 서명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이번 협약은 두 기관이 역량과 자원을 적극 활용하고 협력해 발전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에 이바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장광규 본부장은 화상 협약식이 끝나고 "대한산업안전협회에서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한 시스템 정비에 협조해 주셔서 자신감 있게 일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앞으로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안전 교육 커리큘럼과 콘텐츠 개발에도 협력해 주신다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양 기관은 앞으로 안전 교육 및 안전 기술 개발, 시설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점검 등을 지원하고 협력하게 된다.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위한 안전실천다짐대회

협약식 이후 장광규 본부장을 비롯해 노조위원장, 협력사 소장 등이 안전 실전을 다짐하는 선서와 서명식이 이어졌다. 이들이 맹세한 안전

보건 결의문에는 산업 현장에서 산업 재해와 직업병을 근절해 건강한 사회를 이룩하겠다는 다짐이 담겨 있다. 한편 평택발전본부는 연면적 736제곱미터(m²), 지상 2층 규모의 체험교육시설에 최첨단 VR 체험설비를 도입해 지역 주민들에게 안전 체험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장광규 본부장은 지난 12월 17일 본부 내 '안전 체험 교육장'이 『청소년 진로 체험』 기관으로 선정된 것을 계기로 평택시와 진로 체험 업무협약을 맺고 평택 지역 청소년들의 올바른 직업관 함양을 위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리준법부의 업무 형식은 일정한 틀 안에 갇혀있지 않을 때가 많다. 윤리·인권 분야의 특성상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확산하는 일을 하기에 보통의 부서보다 다양한 기획이 필요한 곳이기도 하다. 매번 수많은 아이디어와 씨름하며 열정을 쏟고 있는 윤리준법부를 만나 보자.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한국서부발전의 아이디어뱅크

사회적가치추진실 윤리준법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온택트 청렴 소통 · 공감 활동 전개

윤리준법부 조석기 차장

한국서부발전의 종합청렴도가 전년보다 한 등급 상승했다. 최근 국민 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청렴도 평가 결과다. 2018년 4등급을 기록한 뒤 매년 한 등급씩 향상되어 2020년에 드디어 2등급을 달성한 것이다. 2013년에 2등급을 달성한 뒤로는 7년만이다. 내부청렴도의 경우에는 2015년 본사를 태안으로 이전한 이후로 점수가 지속적으로 하락해온 터라 직원들의 실망이 컸는데 5년 만에 상향된 것이다. 윤리준법부 조석기 차장은 직원들이 합심하지 않았다면 얻지 못했을 결과라고 말했다.

직원들에 의한, 직원들을 위한 업무 추진

윤리경영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조 차장은 부서원들과 함께 지난 한 해 동안 'WP등대'에서부터 청렴BJ 사내방송, '청렴Mind Pop-Up'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업무를 추진해왔다. 먼저 조 차장은 직원들의 청렴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기존의 '청렴신호등' 제도 운영방법을 대폭 수정하여 'WP등대'라는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그는 우선 단위조직별 청렴수준 진단결과와 공개로 조직 간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는 폐단을 없애기 위해 진단결과를 당해 차·실장에게만 통보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운영 방향도 청렴실천 미진부분에 대한 개선을 독려하는 부분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청렴 우수부서를 칭찬하고 격려하는 쪽으로 바꿨다. 격려와 더불어 포상금까지 주어지니 직원들의 반응도 훨씬 좋아졌다. 조 차장은 대다수의 기관에서 외부 유료서비스를 통해 이용하는 청렴 자기학습시스템(SCLS, Self Check Learning System)을 회사의 현 조직문화와 구성원들의 청렴인식에 맞게 직접 제작해 '청렴Mind Pop-Up'이라는 이름으로 사내포털에 게재하기도 했다. 그를 비롯한 윤리준법부 직원들이 위트 있는 이미지와 문구를 직접 구상해 매일 아

침 팝업창으로 띄웠기에 타 부서 직원들로부터 긍정적인 피드백을 얻을 수 있었다.

새해 계획은 '청렴 문화 지체' 현상 해소

2018년 이후 한국서부발전의 종합청렴도는 4등급에서 2등급으로 매년 한 등급씩 향상되었으며, 내부청렴도 역시 2년 연속 4등급을 탈피하며 3등급을 달성하는 등 정량적 부문에 있어서는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다. 하지만 직원들의 인식은 이런 변화와 궤를 달리하고 있다. 조 차장이 올해 업무계획을 '청렴 문화 지체 현상 해소'로 세운 이유다. 문화 지체란 급속하게 발전하는 물질 문화와 상대적으로 완만하게 변하는 비물질 문화 간의 변동 속도 차이 때문에 생기는 현상을 말한다. 조 차장은 이러한 현상이 한국서부발전의 청렴인식과 맞닿아 있다고 생각한다. 그는 수치적인 측면에서 개선된 상황과 직원들의 인식이 반드시 정비례하는 것은 아니며 부정·부패·비위 등에 대한 직원들의 경험률과 인식이 일치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인권경영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것은 열정과 의지

윤리준법부 강정은 차장

2018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경영 매뉴얼을 기반으로 한국서부발전에도 인권경영 체계가 구축됐다. 하지만 인권위의 인권경영 매뉴얼은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인 만큼 발전회사의 특성과 상충하는 부분도 적지 않다. 윤리준법부 내에서 인권경영을 담당하는 강정은 차장은 이 간극을 좁히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직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다

지난여름 태안발전본부에 ‘마음나눔’ 센터가 들어섰다. 회사 인권·윤리·법무 담당자들이 상주하는 곳으로 사업소 직원을 비롯해 협력사 근로자들의 고민·건의 등 현장의 목소리에 다가가는 소통·상담채널이다. 업무에 지쳐 이곳을 찾기 힘든 근로자가 있을지 모른다는 판단에 홍보용 차량도 동원됐다. 강 차장은 이 차를 타고 직접 설비 부서를 찾아가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도 했다. 그러다 보니 이전보다 현장의 고충에 공감할 수 있게 됐다. 많은 부분이 개선되지 못해 아쉽지만 아직 시작 단계인 만큼 직원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강 차장은 밝혔다.

부당업무 지시 사례집 발간이 시초

한국서부발전이 공공기관 최초로 펴낸 ‘부당업무 지시 사례집’은 2017년 권익위가 10대 반부패 우수시책으로 선정하면서 다른 기관들이 벤치마킹한 바 있다. 직원들의 경각심을 일깨우는 데 큰 역할을 한 이 사례집이 올해는 ‘60계 지킴이북(e-book)’이라는 이름의 전자책으로 발행된다. 60가지의 경계해야 할 사례를 담은 이 책에는 직원들의 입장을 대변할 회사 공식 청렴 캐릭터인 ‘탁 대리’가 등장할 예정이다. ‘경

계할 계’와 ‘닭 계’의 동음을 센스 있게 살린 청렴 캐릭터의 등장에 귀추가 주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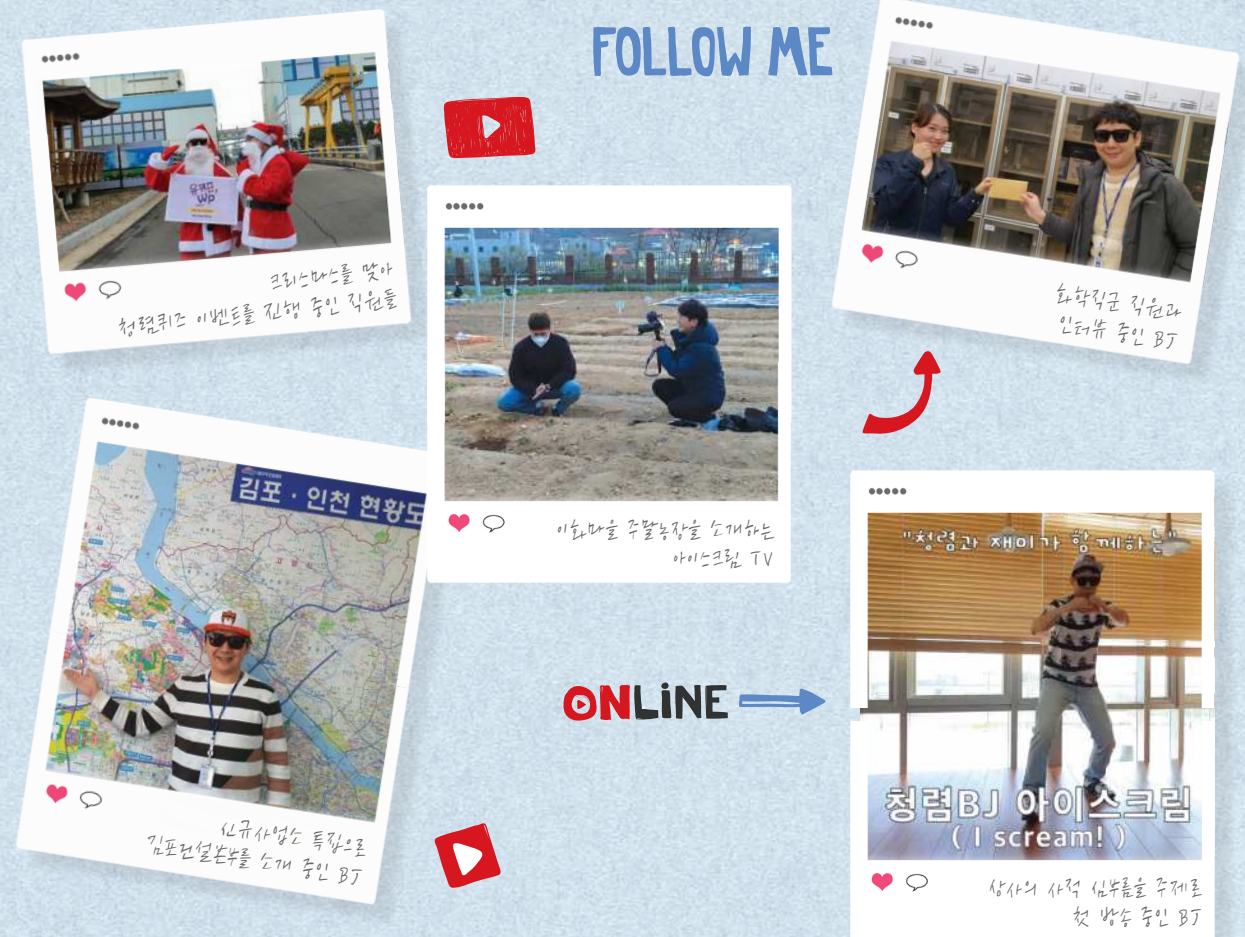
인권경영 가치 확산이 목표

인권경영 체계가 외형적인 틀을 갖추기 시작한 시점은 3년 전이다. 이때 수립된 중장기 계획은 2020년부로 만료됐다. 이에 강 차장은 올해 새로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협력사와 지역사회로 인권경영 가치를 확산해나가는 한 해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윤리준법부의 다양한 시도로 한국서부발전의 진가가 재발견될 수 있기를 바란다.



자발적으로 만든 방송 ‘아이스크림 TV’

직원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이야기를 시원하게 해준다는 의미에서 ‘아이스크림(I-Scream) TV’라는 이름으로 BJ 방송을 제작한 직원들이 있다. 윤리준법부 조민창 사원과 한지현 사원이다. 이들은 기획에서부터 촬영, 편집에 이르는 방송 전 과정을 자체적으로 해결했다. 소통과 공감이라는 테마를 바탕으로 매년 새로운 주제를 선정해 1년 가까이 방송을 제작했다. 2021년에는 보다 퀄리티 높은 방송을 선보이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한다. 시즌 2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벌써부터 기대된다.



비전테크는 친환경 고효율 LED를 생산하는 녹색전문기업으로 2009년 3,000만 원의 자산으로 출범하여 현재 200억대의 조달 우수, 국방 우수 기업으로 성장한 부산의 강소기업이다. 특히 비전테크의 기술연구소는 끊임없는 개발을 통하여 10여 년 동안 NET, NEP 인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IP스타기업으로 보유한 특허가 60여 건이 넘는 정도이다. 산업통상부와 부산시 선도기업으로서 기술 개발과 사회공헌을 함께 실천하는 비전테크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자연과 사람이 빛으로 하나되는 밝은 세상을 꿈꾸다

(주)비전테크 김채원 대표



비전테크, 기술력으로 승부하다

한국서부발전과 비전테크의 인연은 2017년부터 시작했다. 현재 태안발전소에도 비전테크의 분진방폭등과 투광등이 설치되어 있다. 분진방폭등은 석탄 저장고처럼 공기 중에 미세한 가연성 입자가 퍼져 있는 곳에 필요한 조명이다. 뿐만 아니라 방폭 구조에 따른 결로현상은 제품에 치명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 비전테크 기술연구소는 이러한 문제를 특허 접목을 통한 NEP기술로 해결하였다. 김채원 대표는 '누설전류 제한' 기술 특허를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5년에 걸쳐 연구개발했다. 또한 비전테크는 누수에도 정상으로 작동되면서 감전이 되지 않는 안전 단자대를 개발하여 조달청으로부터 2019년과 2020년 2년 연속 조달청 혁신시제품으로 지정받았다. 누설전류 제한 기술이 적용된 단자대는 한국서부발전의 요청에 의해 만든 것으로 향후 한국서부발전을 포함한 6대 발전소에 납품을 희망하고 있다. 발전소의 지원을 통해 세계 최초로 누수에도 정상 작동되는 무감전 배전반을 개발하여 내년에 출시할 예정이다.

전기와 물은 상극임에도 불구하고 물속에서 전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며 인체에는 감전되지 않는 마술 같은 이 신기술은 '가우스의 법칙'과 '저항의 기술'을 응용했다. 기술 검증은 KTC와 KTR에서 이미 마친 상태이며 이러한 기술을 통해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비전테크는 앞으로도 고효율 LED 조명등의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IoT를 활용한 스마트조명으로 영역 확장도 꿈꾸고 있다. 이미 레드오션으로 바뀐 LED 조명 시장에서 인간 맞춤형 조명으로 활로를 개척하려는 시도다.

지역 주민과 상생하는 기업

김 대표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을 정도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이 크다. 현재 비전테크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직원의 상당수도 장애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김 대표는 이제 회사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로도 시선을 돌리고 있다. 비전테크는 '연료전지 발전소'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과 부산보건의용품 협동조합과 부산신재생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지역 발전의 초석을 마련하였다. 비전테크가 소재하고 있는 금사공단은 예부터 원단을 이용하여 제품을 양산했지만 현재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여 협동조합을 설립하게 됐다. 또한 5개년 계획으로 지역의 에너지 자립화 마을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호응도와 참여도가 매우 높은 상황이다. 이 두 개의 협동조합은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거듭날 계획이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현재의 해답을 찾고는 한다.
 〈에너지家〉는 한국서부발전의 면면을 품은 역사서이기도 하다.
 아직 풀지 못한 문제가 있다면 10년 전으로 시간여행을 떠나보자.

10년의 시간을 되짚다 WP 타임슬립

2011년 〈에너지家〉 1+2월호를 돌아보다



2011년 〈에너지家〉 1+2월호 표지



눈이 소복히 쌓인 나뭇가지를 보면 시간이 멈춘 듯 고요한 숲이 떠오른다. 동물들도 겨울이 오면
 봄을 기약하며 겨울잠에 들어간다. <에너지家> 1+2월호는 이런 겨울을 정체의 계절이라고 말한
 다. 2021년의 겨울 역시 멈춤이 필요하다. 유례 없이 힘든 2020년을 보낸 모두가 잠시 쉬는 시간
 을 발판 삼아 새해에는 힘차게 도약할 수 있기를 바란다.





WP Focus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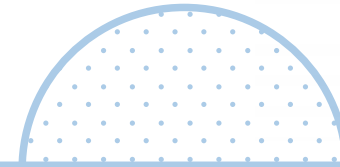
한국서부발전 CEO와 함께하는 자선음악회

2010년 12월 서인천발전본부는 인천시 서구 심곡동 사회복지시설인 '은혜의 집'에서 자선음악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레인보우재즈오케스트라 단원들을 비롯해 김문덕 전 한국서부발전 사장, 라영운 지휘자를 포함한 24명, 서인천발전본부장, 경영기획처장 등이 참석했다. 음악회는 대중가요와 영화음악, 친숙한 클래식 등 익숙하거나 새롭게 편곡한 곡으로 구성됐다. 이번 행사는 이전보다 공연 시간을 늘려 1시간 30분 동안 3부로 나눠 진행됐다.

모든 좌석이 관객들로 꽉 찼고, '빛속의 여인'을 시작으로 '꽤지나 칭칭', '아빠의 청춘' 등 신나는 리듬이 이어졌다. 자리에서 일어나 어깨춤을 추는 관객들의 모습에 저절로 박수가 흘러나오기도 했다.

은혜의 집 가족과의 소통을 위해 기획된 자리인 만큼 지휘자인 라영운 씨가 오케스트라를 구성하는 악기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성악가 김성국 씨의 열창이 이어진 뒤에는 300만 원 상당의 생필품을 전달하는 성금 전달식도 거행됐다.

김문덕 전 사장은 “주변에 도움을 주고 싶고, 음악으로 기쁨을 나누고 싶다는 생각으로 이곳을 찾게 되었다”며 “작은 성의지만 도움이 됐으면 하고, 음악도 함께 즐겨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은혜의 집 가족들은 김문덕 전 사장에게 꽃다발을 전하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WP Focus 02

하나님의 중요성 깨우친 WP ACT 프로그램



한국서부발전은 한국표준협회 양성인재개발원에서 2010년 11월부터 12월까지 총 5차에 걸쳐 소통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조직 역량을 쌓는 ACT(Action Change Team-building)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 프로그램은 리더와 팀워크의 중요성 등을 체험할 수 있게 구성됐다. 전 직원의 행동 변화와 그에 따른 조직역량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된 ACT 프로그램의 취지는 '소통을 통한 기업문화 구현'이다.

첫날에는 조별 토론으로 회사 생활을 하면서 어려웠던 점과 보람 있었던 점을 공유하며, 그 내용을 바탕으로 연기하는 스위칭 드라마(Switching Drama)가 진행됐다. 직급과 사업소 구분 없이 조를 편성해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었다. 참가자들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눈맞춤, 대화, 스킨십 등이 소통을 이끌어내는 요소임을 체험했다. 덕분에 상사와 부하의 입장 차이도 이해할 수 있었다.

이튿날에는 서바이벌 게임을 하며 상호 배려와 신뢰, 팀워크의 중요성을 배양했다. 더불어 김홍걸 강사와 용혜원 강사의 강연으로 소통의 필요성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보냈다. 1박 2일 동안 전·차·실장 및 사업소장과 팀장, 직원이 한자리에 모여 상호 간의 이해 증진을 도모할 수 있었다. 김문덕 전 사장은 1차와 5차 프로그램에 참석해 직원을 대상으로 특강을 진행했다. 그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서부인의 응집력이 강화돼 기업문화가 정립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WP : Eco

30



36



38



26 Focus

전력 산업의 미래, 과연 어떻게 변할까

30 Eco friendly

재활용 가죽으로 신발 제작하는 사회적 기업 아나키아

34 Campaign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한 운동, 플라이트 셰임

36 Animal

재두루미와 노랑부리저어새

38 Plant

공기 정화 능력이 뛰어난 식물

40 Book

작지만 소중한 친환경 활동을 도와주는 도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재생에너지는 다른 나라의 일로만 여겨졌다. 하지만 수십 년 동안 굳건하게 유지되던 우리나라 전력산업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그동안 전력 산업을 지탱해 오던 원전, 석탄 발전이 해체되고 있다. 초고압 송전망에 의존하던 전력 시스템도 더 이상 확충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전력 산업에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그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전력 산업의 미래, 과연 어떻게 변할까

글 한국전기연구원 전력정책연구센터 이창호 박사

IRENA 전망치에 따르면
앞으로 2030년까지 해마다 태양광은 140GW,
풍력은 80GW 늘어나
각각 2,037GW와 1,455GW에 이를 것이다.
이대로라면 앞으로 한 세대 안에 재생에너지가
전력 공급의 대부분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이제 재생에너지나 분산자원을 전력 수급에 구색이나 맞추는 자투리 전원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다. 변화는 이미 전원과 공급 분야에서 시작됐다. 201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매년 늘어나던 전력 수요가 2015년 이후 정체 상태다. 오히려 코로나19 때문에 수요 감소에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원전 비중은 1990년대에 정점을 찍은 후 감소 추세로 접어들고 있다. 얼마 전 발표한 '제9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르면 2034년에는 설비 비중이 9.9%까지 줄어든다고 한다. 반대로 신재생에너지는 2034년에 40%까지 설비 비중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0년 IRENA(International Renewable Energy Agency, 국제재생에너지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보급된 태양·풍력 발전설비가 각각 486GW와 564GW에 이르고 있다. 우리나라의 총 발전 설비가 약 100GW이고 원전 등 대형 발전소 규모가 1GW라면 그 규모가 대충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 갈 것이다.

IRENA 전망치에 따르면 앞으로 2030년까지 해마다 태양광은 140GW, 풍력은 80GW 늘어나 각각 2,037GW와 1,455GW에 이를 것이다. 이대로라면 앞으로 한 세대 안에 재생에너지가 전력 공급의 대부분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재생에너지가 본격적으로 보급된 기간을 감안한다면 전력 공급 구조와 방식에 실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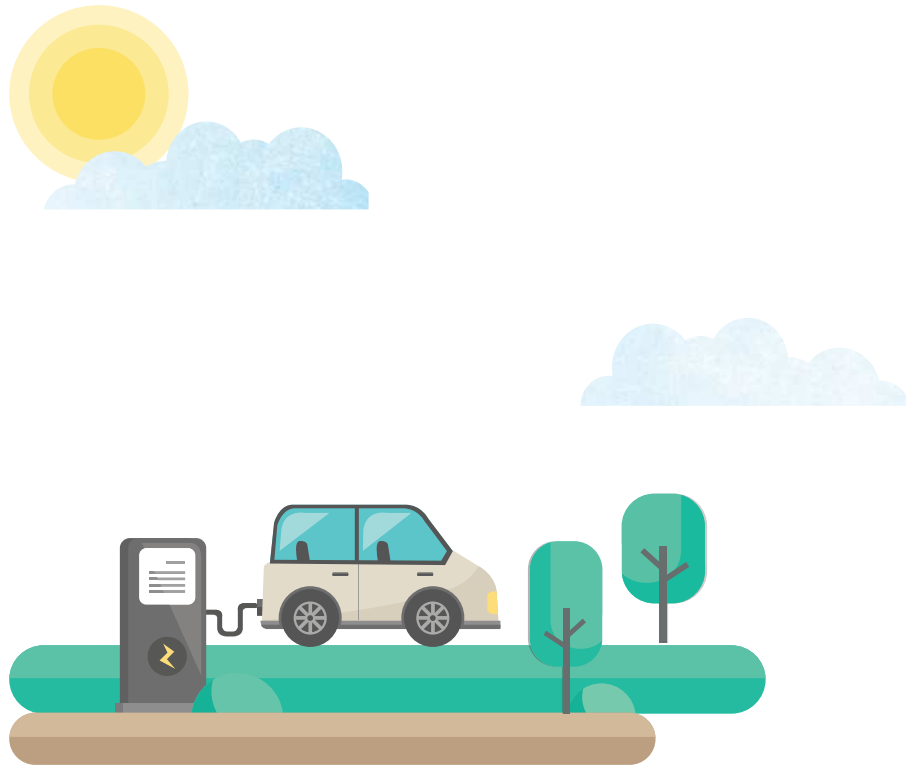
앞으로 수요 많아질 분산자원

이러한 전력 산업 환경 변화는 필연적으로 분산자원에 대한 요구로 이어진다. 정부는 에너지 기본 계획과 '전력 수급기본계획', 온실가스 감축목표 등 국가 에너지 정책을 통해 분산자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정부는 2014년 수립된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현재 5% 수준인 분산형 전원의 비중을 2035년에는 15% 이상으로 확대하며, 최근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는 2040년까지 분산 에너지를 30%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최근 들어 전력 수요 증가가 낮아지기는 했지만 수도권 등 수요 밀집 지역은 공급이 턱없이 적어 수급 불균형이 지속될 것이다. 이를 방지한다면 송전망 등 신규 전력 설비가 필요할 테지만 대규모 발전소나 송전망 건설은 입지 및 환경 문제로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분산자원의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하는 이유다.

지금과 같은 속도로 에너지의 분산화, 친환경화가 진행된다면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연결된 송전망은 더 이상 필요치 않을 것이다. 재생에너지, 열병합 시스템 등 분산전원은 대규모 중앙 집중형 전원에 비해 환경, 에너지 효율과 전력 시스템 관점에서 우위에 있다.

특히 분산자원은 막대한 송배전 투자비용의 감소는 물론 전력 손실 감소, 지역적 혼잡 완화 등 다양한 편익을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에너지 보급의 큰 장애물인 설치 장소, 환경 문제, 전력망 문제가 해결된다. 또한 전기·열·가스 에너지의 통합 생산과 저장을 통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분산 편익과 환경 편익을 반영할 경우 경제성도 나아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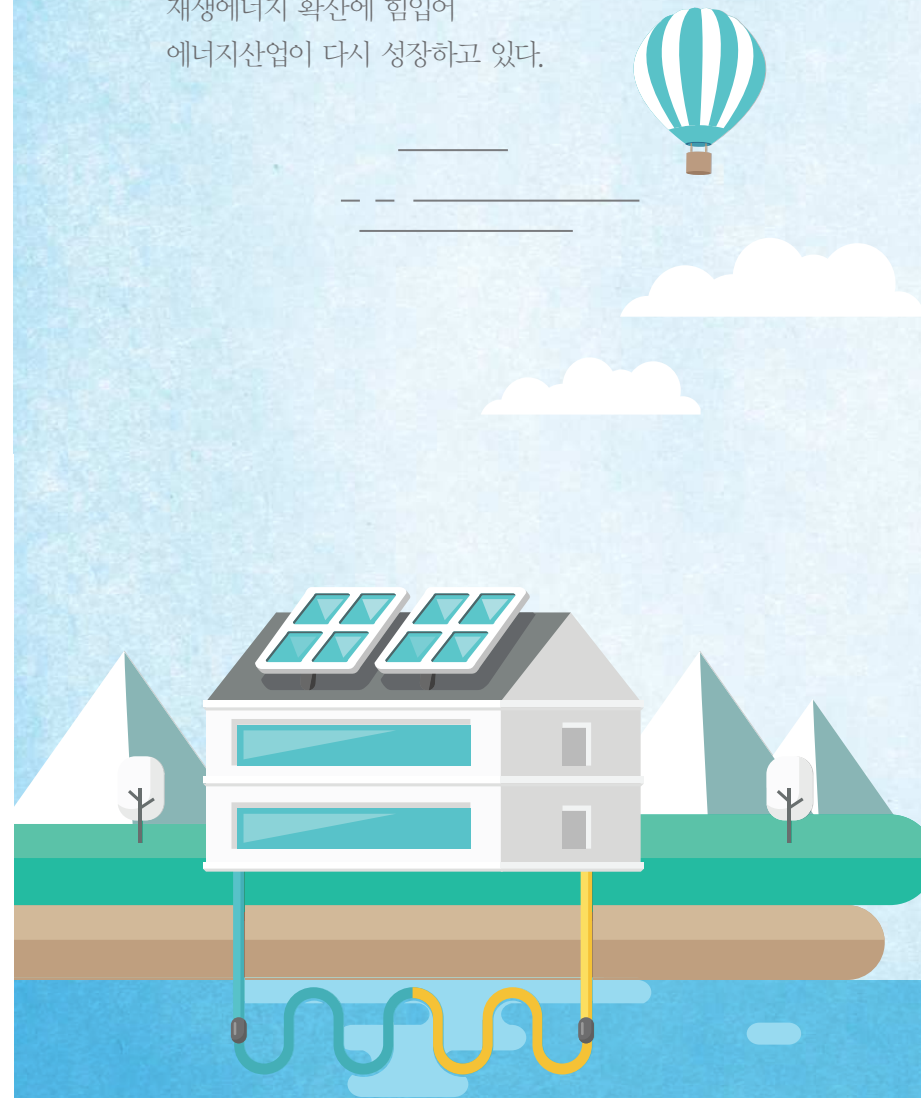
전원(또는 발전설비) 선택의 기준은 경제성 중심에서 환경성, 사회적 수용성 등으로 넓어지고 있다. 과거에는 직접비용만을 반영했으나 이제는 환경, 보상, 갈등, 정책, 폐



지 비용 등 사회적 비용 또는 외부 비용이 내부화되는 추세다. 원전 발전, 석탄 발전은 싸고 재생에너지, 분산자원은 비싸다는 고정관념도 조금씩 변하고 있다. 재생에너지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거나 안정화되고 있다. 태양광, 풍력 등의 재생에너지 단가는 이미 많이 떨어졌다. 일부 국가에서는 기존 발전 단가보다 낮다. 다만 기후에 민감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공급과 전력 품질 유지를 위해 예비력이나 보완 설비, 나아가 전력 계통의 보강이 필요할 것이다.

이제는 빠르게 변화하는 전력 산업의 미래를 대비할 때다. 변화는 한편으로 망설여지지만 새로운 기회이기도 하다.

선진국의 전력 산업은 이미 1980년대 이후 정체 상태에 접어들었지만 2000년 이후 재생에너지 확산에 힘입어 에너지산업이 다시 성장하고 있다.



전력 산업, 공급자 중심에서 프로슈머의 시대로

전력과 에너지 산업은 바야흐로 프로슈머(Prosumer, 소비자가 제품 개발에 참여하는 방식)의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전력회사(생산자)가 대규모 발전소와 송전망을 건설하여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공급자 중심'이었다. 그러나 새로운 에너지 생태계에서는 더 이상 이런 방식에 의존하기 힘들다. 아울러 필요한 에너지를 스스로 공급할 수 있는 기술적·경제적 토대가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 머지않아 소비자가 전력을 스스로 총당하거나 남은 전력을 다른 곳에 파는 일도 생길 것이다. 태양광, 풍력, 바이오 수소 연료 전지 저장 시스템, 전기 자동차, 스마트 그리드의 등장으로 프로슈머 시대로 가는 장애물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 정책과 지원제도 또한 빠르게 마련되고 있는 것은 물론이다.

따라서 이제는 빠르게 변화하는 전력 산업의 미래를 대비할 때다. 이미 우리는 2010년 이후 '발전차액지원제도',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Renewable Energy Portfolio Standard)'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공급과 운영 경험을 축적해왔다. 변화는 한편으로 망설여지지만 새로운 기회이기도 하다. 선진국의 전력 산업은 이미 1980년대 이후 정체 상태에 접어들었다. 설비는 남아돌고 수요는 포화 상태였지만 2000년 이후 재생에너지 확산에 힘입어 에너지산업이 다시 성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시기만 다를 뿐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이다. 전력산업 생태계의 기술, 자원, 비즈니스 모델, 시장 참여자가 훨씬 다양해지고 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전기 제품이 개발되고, 전기차와 수소차의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 에너지를 전기 형태로 사용하는 전력화율은 계속 높아지는 추세다. 이제는 안정되고 닫힌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생태계를 향해 한 발 더 다가설 때다.

버려지는 자투리 가죽에 환경적 가치를 더한 신발이 탄생했다. 재활용 소재에 대한 인식을 바꾸면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 자원 순환을 실천하며 가치의 변화를 이끄는 기업 아나키아를 만나보자.

사진 및 자료 제공. 아나키아

업사이클링, 트렌드를 넘어 문화로

아나키아 임희택 대표



아나키아는 정부가 아직 하지 못한 일을
먼저 해보자는 뜻으로 지은 이름이다.



아나키아의 출발점

2017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하루에 버려지는 가죽은 323톤에 달한다. 중국에서는 우리나라의 1,000배가 넘는 가죽 쓰레기가 매립·소각되며 2차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실정이다. 이렇게 많은 가죽이 버려지는 것은 제품 생산에 가장 높은 등급의 부위만 쓰이기 때문이다. 아나키아의 임희택 대표는 신발 업계에서 근무하는 동안 자신이 수많은 자투리 가죽을 만들어냈다는 사실을 미처 알지 못했다. 그러다 참석한 자원순환 포럼에서 큰 충격을 받았다. 아이들이 쓰레기 산에서 노는 모습을 잊을 수

가 없었다. 쓰레기 산의 엄청난 규모가 그를 더 놀라게 했다. 임 대표는 이 일을 계기로 재생가죽을 이용해 신발을 제작하기로 마음먹었다. '아나키아'라는 이름도 이런 생각에서 출발했다. 아나키아는 무정부주의자라는 뜻의 아나키스트와 다른, 정부가 아직 하지 못한 일을 먼저 해보자는 뜻으로 지은 이름이다.

함께하는 착한 소비

아나키아는 2019년 7월에 재생가죽으로 신발을 만드는 친환경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가장 처음 제작한 건 밴딩이 들어간 구두였다. 환

경미화원이 신고 벗기 편한 신발을 만들고자 선택한 아이템이었다. 임 대표가 어릴 적, 환경미화원 아버지를 둔 친구가 있었다. 임 대표는 그 친구와 함께 어른이 되면 환경미화원이 되자는 얘기를 나누곤 했다. 그가 생각하는 환경미화원은 환경문제의 최전선에서 활동하는 분들이기에 그들을 위해 가성비 높은 신발을 제작하고 싶었다.

임 대표는 이렇게 좋은 취지를 담은 제품을 더 많은 사람과 함께 나누고 싶었다. 그래서 펀딩에 참여하기로 했다. 신발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획부터 제작 단계까지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든다. 펀딩에 성공한다면 이 프로젝트에 든 돈 한 지지자가 생기는 것이다. 소비자들의 높아진 의식 수준 덕에 아나키아는 결국 펀딩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3,000%가 넘는 매출을 달성하기까지 했다.



아나키아, 환경을 지키다

아나키아는 창업 후 2년에 걸쳐 5,850개 신발을 만들어냈고 그 결과 소 585마리에 해당하는 가죽 2만6,325평을 보존할 수 있었다. 가죽 원단을 얻기 위해서는 소가 필요하고, 그 소를 키우기 위해서는 물과 녹지가 필요하다. 이런 과정을 따져보면 결과적으로 물 97톤에 이어 화학약품 2.9톤까지 절약한 셈이다. 아나키아는 지난해 환경부가 인정한 환경영예 사회적기업이 되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다.

자원 순환의 가치를 확산하다

아나키아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업사이클링에 관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기 시작했다. 업사이클링이란 버려지는 제품을 단순히 재활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가치를 더해 전혀 다른 제품으로 재생산하는 것을 뜻한다. 임 대표는 먼저 업사이클 젤가 대전을 열었다. 폐목재를 활용해 젤가를 만들어 순환적 가치에 대해 생각해보게 하는 놀이교육이다. 성동구 기준으로 하루 평균 1.6톤의 폐목재가 발생하는데, 이런 환경 이슈를 알리고 놀이를 통해 업사이클의 가치를 전달했다. 업사이클 올림픽도 진행했다. 페트병 분리수거를 스포츠 종목처럼 다루며 올바른 분리수거법을 알아가는 프로그램을 구성해 참가자들이 업사이클링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게 했다.

재생가죽에 대한 편견 깨기

이처럼 직접 업사이클을 체험한 사람과 그렇



1



아나키아가 진행한 업사이클 젤가, 업사이클 올림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참가자들은 자원 순환의 가치를 체득했다.



4



2



3

지 않은 사람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임 대표는 아나키아 초창기 시절 300명을 대상으로 블라인드 테스트를 진행했다. 합성피혁과 재생가죽을 비교하는 실험이었다. 소재에 대해 밝히기 전에는 재생가죽을 선호하던 사람들도 소재를 밝히고 나면 합성피혁으로 돌아서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재활용 가죽에 대한 편견 때문이었다.

아나키아가 사용하는 재생가죽은 일반적으로 가죽 제품을 생산할 때 쓰는 최상급 부위를 제외한 주변 가죽이거나 작은 조각들을 파쇄해 새롭게 만든 재활용 가죽이다. 전혀 문제가 없는 소재인데도 사람들의 오해로 재생가죽이 외면당하는 것이 안타깝다고 임 대표는 말했다. 업사이클링 체험활동을 아나키아 제품 마케팅의 일환으로 곡해하는 시선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 그는 손사래를 쳤다. 즉각적인 반응

을 기대했다면 이런 활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교육 프로그램의 주 대상이 청소년인 이유는 현재가 아닌 미래를 바꾸기 위해서라고 임 대표는 덧붙였다. 훗날을 위해 업사이클의 가치를 널리 알리는 것은 아나키아의 여러 목표 가운데 하나다.

사회·환경과 동반 성장을 꿈꾸다

사회와 함께 성장하고 싶다는 임 대표는 펀딩을 통해 받은 관심과 지원을 필리핀 아이들에게 나누기도 했다. 그가 마닐라의 한 대학교에 교환학생을 다녀온 것이 계기였다. 마닐라 외곽이나 빈민가 주변으로 사진을 찍으러 다녔던 임 대표는 아이들이 발에 맞지 않는 신발을 신고 있는 것이 내심 마음에 걸렸다고 한다. 심지어 신발이 없는 아이들도 많았다. 그가 신발을 들고 직접 필리핀을 방문한 덕에 이제는

30명 가까운 아이들이 새 신발을 신고 안전하게 걸을 수 있게 됐다.

임 대표의 최종 목표는 아나키아를 친환경 워커 브랜드로 성장시키는 것이다. 좋은 가치를 담은 제품을 합리적으로 거래하는 글로벌 회사로 거듭날 아나키아의 미래를 기대해본다.

- 1 페트병 분리수거 게임을 하는 참가자들.
- 2 필리핀 아이들이 기존에 신던 신발.
- 3 필리핀 아이들에게 신발을 나눠주고 있는 임희택 대표.
- 4 폐목재를 활용한 젤가로 게임을 하는 참가자들.

스웨덴의 많은 청소년의 고민 중 하나는 바로 '지구의 미래'다. 어릴 때부터 환경교육을 받고 자란 세대이기 때문에 기후 변화에 관심도 많고, 환경 보호를 실천하려는 의지도 강하다.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비행기 이용을 줄이자는 '플라이트 셰임(Flight Shame)' 운동도 이런 배경에서 시작된 스웨덴의 환경 캠페인이다. 과연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자.

지구를 위해 불편함을 감수하자

플라이트 셰임 운동

저탄소 운동은 세계적인 흐름

지구 온난화가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탄소를 줄이려는 각종 캠페인이 펼쳐지고 있다. 특히 유럽 항공 업계의 변화를 눈여겨볼 만하다. 세계자연기금에 따르면 지난 2018년 한 해 동안 스웨덴 인구의 23%가 비행기를 이용하지 않았다. 2019년 1분기에는 스웨덴 국내선 이용객이 2018년에 비해 3%p 감소했다. 프랑스는 2020년부터 이륙하는 모든 비행기에 최대 18유로의 환경세를 부과한다. KLM 네덜란드 항공은 여행객들에게 비행기 이용을 줄일 것을 권하는 캠페인을 펼쳤다. 이런 변화는 모두 '플라이트 셰임(Flight Shame)' 운동에서 기인한다. 플라이트 셰임이란 비행기(Flight)와 부끄러움(Shame)을 조합한 신조어로 탄소를 대량 배출하는 비행기 이용에 부끄러움을 느끼자는 취지

서 만들어진 단어다. 스웨덴에서는 '플뤼그스캄(Flygskam)'이라고 불린다. 스웨덴에서 이 운동을 먼저 시작한 건 유명 인사들이었다. 이들이 항공기를 이용한 여행을 하지 않겠다고 공개 선언한 후로 많은 사람이 이를 지지하며 플라이트 셰임이 확산됐다. 유럽 환경청에 따르면 비행기를 타고 1km를 이동할 때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는 285g인 데 비해 기차가 1km를 이동하는 동안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량은 14g에 불과하다. 비행기 대신 기차를 타고 여행하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는 '트레인 브래깅(train bragging·tågskryt)'도 떠오르고 있다. 기차로 이동하는 것을 SNS에 드러내며 환경을 위한 선택을 인증하기도 한다. 비행기를 타고 여행하는 것을 숨기는 분위기도 확산되고 있다.

그레타 툰베리의 무탄소 여행

기후변화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등교 거부 시위'를 펼친 그레타 툰베리가 플뤼그스캄에 동참하면서 스웨덴 학생들 사이에서도 이 운동이 빠르게 확산됐다. 툰베리는 타임지 '올해의 인물'에 선정됐을 정도로 영향력이 크다. 역대 최연소 '올해의 인물'로 선정된 그녀는 지난 2018년부터 매주 금요일마다 학교에 가지 않고 국회 앞에서 환경 문제에 관한 시위를 하면서 유명해졌다. 툰베리는 2019년 세계기후행동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자신이 사는 스웨덴에서 뉴욕까지 태양광 요트를 타고 이동했다. 비행기를 이용했다면 하룻밤 사이에 도착할 수 있었지만 탄소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무려 2주에 걸쳐 바다를 건너간 것이다.



전 세계 2,000여 개 도시에 사는 청년들이 툰베리를 따라 움직일 정도로 대단한 인물이지만 그녀를 향한 정책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가 외치는 탄소 중립 구호가 지나치게 이상적이라는 견해도 존재한다. 실제로 그가 이용한 태양광 요트는 일반인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아니다. 탄소 발생이 적은 태양광 요트를 이용해 유럽에서 미국까지 이동하려면 값비싼 요트 비용과 2주에 달하는 시간을 기꺼이 지불할 여유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무탄소 여행이 더 비난받은 이유는 요트를 운전한 선원들이 비행기를 타고 이동했기 때문이다.

환경교육이 필요한 이유

실제로 툰베리는 환경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나 대안을 갖고 있지 않다. 다만 환경 문제에 대한 화두를 끊임없이 던지며 사람들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면에 있어서는 그를 따를 자가 없다. 툰베리는 어렸을 때 선생님이 학교에서 보여줬던 환경 관련 다큐멘터리를 통해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대해 알게 됐다고 한다. 스웨덴은 1972년 스톡홀름에서 열린 유엔인간환경회의를 기점으로 유치원 아이들부터 성인이 받는 모든 교육 커리큘럼에 '환경교육'을 포함했다. 한국에서도 환경교육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현실의 벽은 높기만 하다. 우리나라에도 하루빨리 환경교육이 의무화돼 툰베리처럼 영향력 있는 환경운동가가 나오기를 기대해본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전 인류의 움직임이 줄어들자, 그간 사라졌던 동·식물이 다시 등장했다는 뉴스가 보도된 적 있다. 인류에게 최악의 바이러스로 기록될 코로나19가 지구에게는 치료제가 된 것이다. 떠났던 동물이 하나 둘 다시 발견되는 요즘, 경기도 김포 일대에서 발견된 멸종 위기 조류를 살펴보았다.

한 번 맺은 인연은 영원히, 재두루미

백조만 춤추는 것이 아니다. 두루미의 춤 또한 그에 못지않다. 두루미는 구성원 간의 애정을 표현하고 관심을 끌기 위해 춤추듯 날갯짓을 하고 노래를 부른다. 서로 시선을 맞추면서 하늘과 땅을 굽어보는 모습은 공동체의식을 다지는 일종의 의례이자 우아한 무용수의 춤 같다. 때문에 한반도 동남쪽 끝에 자리한 동래, 수영 지역에서는 이 모습을 춤으로 형상화해 '동래학춤'이라는 이름으로 전승하고 있다.

두루미는 한 번 맺은 짝을 배신하지 않아 '천 년의 사랑꾼'으로 불리기도 한다. 최근 한 방송에는 2020년 봄, 우리나라에서 다친 암컷을 두고 번식지로 떠났지만 5개월 만에 2,000km를 날아 다시 암컷을 찾아온 수컷 재두루미의 이야기가 소개되어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안겨주었다.

전 세계적으로 4,500~5,000여 마리 정도 남은 재두루미는 천연기념물 제203호이자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으로 지정됐다. 재두루미의 몸 길이는 119cm~127cm에 달한다. 깃털이 흰 색인 두루미와 달리, 온 몸이 짙은 회색이라 재두루미라 불린다. 눈 가장자리와 뺨에 붉은색을 띠는 것이 특징이다.

재두루미는 중국, 일본, 한국 등지에 분포해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한강 하구와 임진강 하류가 교차되는 지역이 주 도래지 중 하나로 손꼽힌다. 이 새는 해마다 월동했던 지역을 정확하게 다시 찾아온다. 그 중에서도 김포시 시암리 습지는 1970년대까지도 2,000마리 이상의 재두루미가 찾는 우리나라 최대의 월동지 중 하나였다. 하지만 농경지 감소와 개발로 인해 재두루미의 겨울나기가 벅장 끝에 내몰린 상황이다. 인간이 이들을 기억하고 생존할 터전을 지켜준다면 귀소본능이 강한 재두루미는 끝까지 우리를 찾아올 텐데 말이다.



‘천 년의 사랑꾼’ 재두루미



‘고달픈 사냥꾼’ 노랑부리저어새

넓적한 부리를 저으며 사냥하는 노랑부리저어새

저 멀리 물속에 머리를 박고 이리저리 좌우로 무언가를 찾아 헤매는 새가 눈에 들어온다. 흰색 털이나 생김새가 백로인가 싶는데, 자세히 보면 부리가 밥주걱처럼 넓적하고 노랗다. 천연기념물 제205-2호이자, 환경부가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지정한 노랑부리저어새이다. 환경부는 보존할 필요가 있는 야생 동식물 가운데 가까운 장래에 멸종 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경우 2급, 개체수가 현저히 감소되어 멸종 위기에 처한 경우 1급으로 분류해 지정하고 있다.

저어새는 전 세계적으로 5종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저어새와 노랑부리저어새를 볼 수 있다. 그 이름처럼 부리 끝이 노란색인 노랑부리저어새는 몸 길이가 약 86cm로 큰 새에 속한다. 유럽, 인도, 아프리카, 중국, 한국, 일본 등지에 분포해 있다. 우리나라에는 9월부터 3월까지 머무르는 겨울 철새이다. 추운 겨울에는 부리의 노란색이 얼어지는데, 낮은 야외 온도에서 에너지 소모를 줄이기 위해 깃털 사이로 부리를 파묻고 있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다.

노랑부리저어새는 주로 내륙 습지나 얇은 호수, 하천, 강, 저수지 등 비교적 면적이 넓은 습지에 산다. 수영은 하지 못해서 수심이 얇은 곳에서 작은 민물고기, 개구리나 올챙이, 늪지 식물이나 그 열매를 먹으며 생활한다. 새는 대부분 뾰족한 부리를 수직으로 내리꽂으며 먹이 사냥을 하는 반면, 노랑부리저어새는 주걱처럼 생긴 부리를 좌우로 쉴 새 없이 저으며 사냥한다. 정확도 면에선 다소 불리하지만 먹이 시장에서 생존하기 위한 나름의 방법을 찾아냈다고 할 수 있다. '저어새'라는 이름도 넓적한 부리를 좌우로 휘저으며 먹이를 찾는 모습에서 비롯됐다.

겨울이 되면 우리나라에서 강, 하천 등지에서 쉽게 볼 수 있던 노랑부리저어새는 매립 및 개발로 습지가 급격히 훼손되고 줄어들면서 위기를 맞이했다. 게다가 농약 때문에 하천과 습지 생물이 사라지면서 노랑부리저어새는 멸종 위기에 처해있다.



지난 몇 년 사이 심각해진 미세먼지를 비롯해 최근 코로나19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공기 정화 능력을 가진 반려식물에 대한 관심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일찌감치 미국항공우주국(NASA)에서는 완전히 밀폐된 우주선의 공기 정화 방법을 오랜 시간 연구하면서 몇몇 식물에 실내 공기오염 물질 제거 능력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공간을 아름답게 할 뿐만 아니라 공기 정화, 피로 회복 및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재주를 지닌 식물을 하나씩 들여다보자.

미세먼지와 유해 물질은 우리에게 맡겨요

몬스테라 · 틸란드시아 스파티필름 · 스킨답서스

음이온 생성하는 몬스테라

커다란 잎에 구멍이 뿔뿔 뚫린 모습이 인상적인 몬스테라(Monstera). 이름의 어원은 형용사 Monstrous에서 비롯됐는데, ‘도저히 말도 안 되는’ ‘무시무시하게 거대한’ ‘괴물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 열대 우림 속 폭우나 강풍에서 오랜 세월을 살아낸 식물의 인생이 오롯이 담긴 이름이다. 미세먼지 흡착과 음이온 생성 능력이 뛰어나 새집 증후군 예방 및 공기 정화 식물로 인기가 많은 몬스테라는 새순이 말려있다가 점차적으로 잎이 퍼지는 식물이다. 대표종으로 손꼽히는 ‘몬스테라 델리시오사’는 우리에게도 꽤 익숙한데, 원추형 열매의 달콤한 맛 때문에 붙은 이름이다. 몬스테라는 고온다습한 기후를 좋아하며 반그늘에서 키우는 것을 권한다. 생육 적정 온도는 20도~30도. 10도 이하에서는 성장이 멈추므로 겨울철에는 베란다보다 따뜻한 실내에서 키우는 것이 좋다.



미세먼지 흡착하는 틸란드시아

열대 식물인 틸란드시아(Tillandsia)는 라틴 아메리카가 원산지로 전 세계에 400여 종이 서식한다. 토양에 뿌리를 내리지 않고 잎을 통해 양분을 섭취하는 공중 식물이다. 두꺼운 저수 조직을 지녀 건조한 환경에서도 잘 자라며 잎에 솜털처럼 하얀 모용(잎이나 줄기 표면에 생기는 잔털)이 발달해 있어 공기 중의 수분과 미세먼지 등을 흡수한다.

수염 틸란드시아는 뿌리가 공중에 있는 행잉 플랜트라 흙에서 생기는 벌레가 부담스러운 이들도 손쉽게 키울 수 있는 것이 장점. 바람과 햇볕을 좋아해 창가에 걸어두면 공간 인테리어로도 효과 만점이다. 크게 까다로운 식물은 아니지만 환기와 때에 맞는 적절한 수분 공급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틸란드시아는 새집 증후군의 원인 중 하나인 자일렌,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의 농도를 저감시키는 데 탁월하다. 생육 적정 온도는 21도~25도이며, 중간 이상 높은 광도(800Lux~10,000Lux)가 필요하기 때문에 거실 창가나 발코니에서 키우는 것이 좋다.



틸란드시아

아세톤 제거에 탁월한 스파티필름

미국항공우주국이 선정한 공기 정화 식물 중 10위에 오른 스파티필름(Peace lily, 학명 Spathiphyllum)은 일상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식물이다. 적당히 따뜻하고 외부에 비해 습도가 높은 실내라면 무리 없이 잘 자란다. 하루 종일 햇볕이 들지 않는 서쪽이나 북쪽으로 나 있는 창이 있다면 그곳이 바로 스파티필름을 두기 적당한 자리다. 흙이 건조할 경우 물을 넘치지 않게 주되, 반드시 건조할 때만 물을 주어야 한다.

스파티필름은 휘발성 유기 물질 중 특히 아세톤 제거 능력이 뛰어나다. 생활 속 유해 물질은 대부분 접착제, 건축 이음매 물질, 장판, 페인트를 비롯해 컴퓨터 스크린, 프린터기 등에서도 발생하기 때문에 사무실이나 재택 근무를 하는 공간에 스파티필름은 필수다. 최근에는 실내 오존 제거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야말로 최고의 실내 기능성 식물이라 할 수 있다. 스파티필름의 생육 적정 온도는 20도~25도이며, 꽃이 잘 피게 하기 위해서는 20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



스파티필름



일산화탄소를 제거하는 스킨답서스

자라는 속도가 빨라 초보자도 키우는 재미를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스킨답서스(Scindapsus). 원산지는 솔로몬 섬과 인도네시아다. 녹색에 노란색과 흰색이 어우러진 골든 포토스가 우리가 흔히 접하는 대표적인 품종이다. 스킨답서스는 일산화탄소 제거 능력이 뛰어나다. 때문에 주방에 놓았을 때 더욱 효과적이다. 잎에 왁스층이 발달해 미세먼지 흡착도 뛰어나다. 다만 칼슘 옥살레이트라는 독성을 갖고 있어 아가나 반려동물이 먹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생육 적정 온도는 21도~25도이며 실내 어두운 곳, 반음지에 두어도 잘 자라지만 겨울철에는 충분한 빛을 받게 하면서 물을 적게 주는 것이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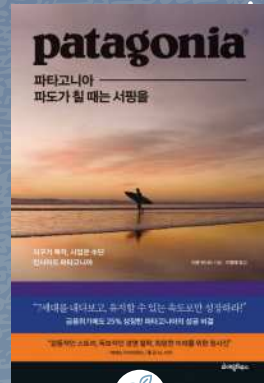


스킨답서스

시베리아와 북극의 영구동토층이 녹아내리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지 오래다. 물질에 집착하는 인간의 욕망이 계속되는 한, 북극곰이 흘리는 눈물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일 테다. 작지만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친환경 활동엔 무엇이 있을지, 책에 그 방법을 물었다.

북극곰과 지구를 지키는 일, 어렵지 않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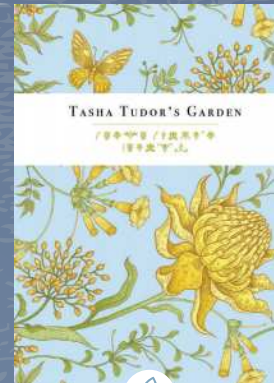
작지만 소중한 친환경 활동을 도와주는 도서



[파타고니아, 파도가 칠 때는 서핑을]

이본 쉬나드 | 라이팅하우스

많은 이들이 ‘뽀글이로 유명한 패션 브랜드’로 ‘파타고니아’를 떠올린다. 하지만 이 브랜드의 CEO 이본 쉬나드가 등산가이자 환경운동가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의 경영 철학은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면서 최고의 제품을 만드는 것, 옷을 만드는 과정에서 생기는 수많은 화학 물질 때문에 차라리 새 옷을 사지 말라고 광고하는 역설을 보여주기도 했다. 가식적인 광고라고 비판할 순 있지만 ‘파타고니아’가 걸어온 길까지 의심할 수 없을 것이다. 책 ‘파타고니아, 파도가 칠 때는 서핑을’에는 이본 쉬나드의 60년 경영 철학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사내용 경영 철학 매뉴얼로 사용하기 위해 출간됐지만 큰 호응을 받아 미국 풀뿌리 환경운동가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 환경 보호가 옵션이 아닌 필수가 된 요즘, 기업이 나아가야 할 친환경 경영 원칙과 비전을 참고하고 싶다면 놓치지 말아야 할 책이다.



[타샤의 정원]

타샤 튜더, 토바 마틴 | 월북

미국에서 동화책 삽화가로 활동하던 타샤 튜더는 미국 뉴햄프셔 주 웨스턴에 있는 크고 오래된 농장을 구입해 아이들 네 명과 함께 살면서 56세부터 정원을 가꾸기 시작했다. 책 ‘타샤의 정원’에는 그가 가꾼 정원의 아름다운 모습, 텃밭에서 기른 식재료로 식탁을 차리고, 필요한 것은 직접 만들어서 쓰는 자연주의자의 면모가 가득하다. 타샤 튜더는 “정원 가꾸기의 좋은 점은 우울할 틈이 없다는 거예요. 정원이 나의 자랑이요 행복의 원천”이라고 말했다. 많은 이들이 마당이 있는 집에서 정원을 가꾸고 반려 동물과 함께 하는 삶을 꿈꾸지만 현실적으로 관리가 어렵고 생활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아파트에 사는 이들도 적지 않다. 하지만 작은 화분 하나하나의 인생을 바꿀 수 있을지 모른다고 타샤 튜더는 말한다. 그의 말을 믿고 어떤 공간이든 그곳에 나만의 작은 정원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월든]

헨리 데이빗 소로우 | 은행나무

‘월든’은 작가 헨리 데이빗 소로우가 1845년 월든 호숫가의 숲에서 통나무집을 짓고 밭을 일구며 2년 동안 자급자족했던 삶을 기록한 책이다. 출간 당시엔 그다지 관심을 받지 못했지만, 자연과 인간의 공존이 중요한 가치로 대두되면서 최근 재조명을 받고 있다. 책에는 작가가 자연인으로 살면서 얻은 통찰력이 빼곡하다. “왜 우리는 성공하려고 이처럼 필사적으로 서두르며, 이처럼 무모하게 일을 추진하는 것일까? (중략) 그가 꼭 사과나무나 떡갈나무와 같은 속도로 성숙해야 한다는 법칙은 없다. 그가 남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 자신의 봄을 여름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말인가?” 어쩌면 지금 우리가 당면한 코로나19가 던지는 메시지도 역시 그동안 앞만 보며 달려온 인류에게 필사적인 질주를 멈추고 휴식하라는 의미는 아닐까?



[캐빈 폰 인사이드]

자크 클라인(기획), 프리다 문 | 판미동

장작을 태우며 마음에 맞는 지인들과 밤새 수다를 떨 수 있는 작은 거실, 아늑한 침실, 간단하게 음식을 해 먹을 수 있는 주방이 갖춰진 작은 별장에서 주말이나 긴 휴가 동안 마음 편히 머무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전작 ‘캐빈 폰(Cabin Porn)’이 자연 속에 직접 집을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뤘다면 ‘캐빈 폰 인사이드’는 집 안 공간에 주목한다. 자연 친화적인 인테리어 팁이 가득하기 때문에 새집 증후군 걱정은 내려놓아도 좋다. 북유럽 스타일 같은 타인의 인테리어 취향도 잠시 접어두자. 대신 우리 집 거실과 내 방을 내가 진정 원하는 것으로 채우는 데 집중해보자. 중요한 것은 사이즈가 아니라 공간을 채우는 나만의 이야기니까.

WP : Life

44



52



54



44 Travel

당진 왜목마을 일출 & 서산 해미읍성

50 Movie & Popcorn

오프닝이 인상적인 영화

52 YouTube

귀여움 한도 초과, 랜선 슈퍼스타 반려 동물

54 Health

슬기로운 비타민 생활

56 Safety Day

문화재 방재의 날

58 숨은 위험 찾기

사무실 감염병 예방법

60 NEWS

한국서부발전 뉴스

63 Event

충남 서산과 당진은 산과 바다, 평야를 모두 품고 있어 다양한 취향을 반영할 수 있는 여행지다. 낭만적 감성에 젖어 들고 싶다면 바닷가에서 해돋이·해넘이를 보자. 자연 속 오랜 역사의 흔적을 만나고 싶다면 사적공원인 조선시대 읍성이나 휴양림 지구 안에 있는 백제시대 불상을 찾아가도 좋다. 먹거리도 빼놓을 수 없다. 간척지에서 해풍을 맞고 자란 농산물과 서해안에서 잡은 신선한 회가 당신을 기다린다.

자연과 역사를
벗 삼아 떠나는 여행

서산·당진의 은근한 매력을 만나다

글·사진 두경아 여행칼럼니스트

자연을 만나다
해안선 따라 떠나는 소항구 여행



일출 보러 서해 간다 당진 왜목마을

아침 7시 40분, 동쪽 하늘에 노을처럼 붉은 기운이 가득하다. 늦을 새라 서둘러 주차를 하고 카메라를 꺼내들었다. 어느덧 해안가 건너 언덕 위로 붉고 동그란 해가 손에 잡힐 듯 떠올랐다. ‘우와~’ 하는 탄성소리가 절로 나온다. 충남 당진 왜목마을 일출 광경이다. 바다와 언덕, 마침 살짝 낀 구름으로 일출은 더욱 드라마틱했다. 과연 일출 명소다.

큰 기대 없이 떠난 길이었다. 일출을 많이 찍어온 사진작가는 “왜목마을 일출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시기는 2월과 10월”이라고 했다. 이때가 되면 노적봉과 장고항 언덕 사이, 빼죽하게 솟은 촛대바위 위로 해가 뜬다. 해는 촛대를 밝히는 불꽃이 되어 신비하고 오묘한 장면을 만들어낸다고 했다.

해 뜨는 위치는 장고항 용무치와 경기도 화성군 국화도 사이다. 동지와 하지로 기준으로 바뀌나, 방향과 상관없이 해가 뜰 때의 아름다움은 변치 않는다. 동해 일출처럼 웅장한 맛은 없지만 서해 일출만의 소박하면서도 서정적인 매력이 있다.

왜목마을에서 일출을 볼 수 있는 것은 이곳의 지리적 특성 때문이다. 지도에서 보면 왜목마을은 북쪽으로 불쑥 튀어 나와 있다. 이 부분의 해안이 동쪽을 바라보고 있어서 동해안과 같은 일출을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덕분에 일출 뿐 아니라 일몰, 달맞이, 별자리를 모두 한곳에서 감상할 수 있다고 한다. 지형적인 이야기는 ‘왜목’이라는 마을의 유래와도 관련이 있다. ‘왜목’은 마



1

2

을 지형이 왜가리 목처럼 가늘고 길게 뻗어 나갔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배를 타고 바다 쪽에서 마을을 바라보면 야트막한 산과 산 사이가 움푹 들어가 가늘게 이어져있다. 땅 모양이 마치 누워있는 사람의 목처럼 잘록하게 생겼다 해서 ‘와목(臥木)’으로 부르던 것이, ‘왜목’으로 바뀌었다는 이야기도 있다. 이제는 비상하는 왜가리를 본 뜬 조형물 ‘새빛왜목’이 바닷가에 자리 잡았으니, 어찌됐든 지금은 왜가리 목 이야기가 더 힘을 얻는 듯하다.

2018년 12월 설치된 이 조형물은 가로 9.5m, 너비 6.6m, 높이 30m 규모로 스테인리스 스틸 강판으로 만들어졌다. 보는 방향에 따라 빛이 반사되는 각도가 달라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낸다. 국내 해상 조형물 중 최대 규모로 포항 호미곶 상생의 손(8.5m)보다 3.5배가량 높다고 한다. 해가 뜰 때는 햇빛이 반사되어 찬란한 모습을

볼 수 있다. 야간에는 조형물 위쪽으로 설치된 LED 조명이 은은하게 빛나 또 다른 아름다움을 연출한다.

새빛왜목 앞에는 왜가리 날개 모양의 의자 조형물이 설치돼 있다.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을 위한 일종의 포토존이다. 의자에 앉아 양손을 벌리면 왜가리가 날아가는 듯한 모습이 연출된다고 한다. 인증샷을 위해서라면 그 앞에 설치된 동그란 기둥인 사진 포인트(photo point)를 찾아보자. 해돋이를 보기 위해 새벽 길을 달려온 피로가 달아날 만한 사진을 얻을 수 있다.

해돋이를 보고 싶다면 인근 석문산으로 가야 한다. 다행히 산이 높지 않아 힘 들이지 않고 올라갈 수 있다. 해마다 12월 31일이면 이곳에서 ‘해넘이 해맞이 축제’가 열려 많은 사람들이 찾아온다. 작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취소됐다. 다만, 올해 설(2월 12일)쯤 방문하면 촛대바위 위로 해가 뜨는 장관을 볼 수 있을 것이다.

- 1 서산 9경 중 하나이기도 한 선상어시장.
- 2 정박된 배들이 모여 어시장을 이루었다.
- 3 배에서는 즉석에서 활어회를 떠서 판다.
- 4 선상어시장에서 구입한 회는 인근 식당에서 매운탕과 함께 먹을 수 있다.

통통배 위에서 먹는 우럭 회 삼길포 회 뜨는 선상

왜목마을에서 삼길포까지는 대호방조제 위 직선거리를 이루는 38번 국도를 거치면, 약 15분 정도 걸린다. 방조제를 건너면 당진에서 서산으로 넘어가는데, 만일 방조제가 없었다면 해안선을 따라 굽이굽이 돌아가느라 꽤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것이다. 이 길은 매우 훌륭한 드라이브 코스다. 한쪽은 바다, 또 다른 한쪽은 대호만이기 때문에 늦가을이면 떼를 지어 다니는 철새들의 비행을 볼 수 있다. 삼길포항 주변의 난지도, 소난지도, 비경도, 대조도, 소조도, 도비도 등도 돌아 볼 수 있다. 유람선이 운행돼 주말이면 관광객이 많이 찾는다.

당진과 서산에는 작은 항구가 많아서 어디서든 신선한 제철 회를 먹을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삼길포를 선택한 것은 ‘선상어시장’이라는 독특한 시장 때문이다. 삼길포 해안가를 지나다 보면, 작은 배 위에 배 이름을 적은 노란색 깃발이 나부끼는 게 보인다. 각각의 배가 고기를 잡는 동시에 고기를 파는 상점인 셈이다.

서산 9경 중 하나이기도 한 선상어시장 ‘회 뜨는 선상’에서는 바다 위에 부교를 만들어 배를 정박시키고 즉석에서 활어회를 떠서 판다. 광어, 우럭, 노래미, 도다리, 간재미, 낙지 등 서해 바다에서 나는 각종 생선을 다룬다. 특히 우럭이 유명한데, 8월이면 전국 유일의 우럭 축제가 열려 우럭 시식 및 우럭 맨손 잡기 체험 등 행사도 열린다.

고깃배로 잡은 현지 해산물을 직접 팔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격이 저렴하다. 특히 이곳 어시장의 상인들이 파는 해산물의 가격은 모두 비슷하다. 분란과 출혈 경쟁을 막기 위해 어민끼리 가격을 합의했다고 한다. 가격은 한 마리 당 15,000원~30,000원 정도이다. 우럭과 도다리 두 마리를 35,000원에 구입했다니 네 명이 먹어도 좋을 만큼 많은 양이 나왔다.

이곳 상인에 따르면 선상어시장은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형성됐다고 한다. 이곳에서 영업하는 상인들은 모두 이 마을에 오래 살아오며 어업에 종사해 온 사람들이다. 처음에는 29척이 영업했지만, 점차 선주들의 건강이 악화되거나 세상을 떠나면서 현재는 22척이 영업 중이다. 움직이는 배가 상점이다 보니 자리 선정은 꽤 공정하며 유동적이다. 매일 순차적으로 돌아가며 자리를 바꾼다. 오늘은 끝자리라 손님을 덜 맞이했다면 내일은 가장 좋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이곳에서는 회를 먹을 수 없고 인근 식당에 가져가야 한다. 1인당 6,000원을 내면 매운탕을 포함해 밥과 밀반찬, 초장, 된장 등이 제공된다. 회와 매운탕 거리를 들고 인근 ‘바다식당’에 자리 잡았다. 주인은 “이제 막 밥을 해서 맛있다”면서, “아버지가 직접 농사 지은 서산 해풍 쌀”이라고 자랑했다. 쫄깃한 회와 시원한 해물탕, 거기에 갓 지은 밥, 어느 하나 허술하지 않았던 밀반찬까지... 체면 차리지 않고 허겁지겁 먹어도 부끄럽지 않았다.



3



4

역사를 만나다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시간 여행

깎아지른 절벽 아래서 만난 백제의 미소 서산 용현리 마애여래삼존상

서해안고속도로 서산IC로 나와 좁고 길게 뻗어 있는 용장천을 따라가다 보면, 그림 같은 풍경을 가진 고풍 저수지를 만난다. 농업용수를 위해 조성한 저수지지만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비밀스러운 유럽 휴양지 분위기가 난다. 이곳 바로 옆에는 가야산 줄기에서 이어지는 용현계곡과 용현자연휴양림이 있다. 이곳이 유명한 이유는 서산마애불로 불리는, 백제 후기 문화유산인 국보 제84호 서산 용현리 마애여래삼존상이 있어서다. 휴양림으로 들어서는 입구에서 조금만 들어가면 용현집 맞은 편에 나무데크로 조성된 길이 나타난다. 계단을 따라 산을 오르다 보면 관리사무실과 ‘불이문’이 나온다. 이 문으로 들어서면 돌계단으로 이어진다. 그 끝은 깎아지른 절벽, 커다란 바위 아래 새겨진 세 개의 불상이 있다. 2.8미터에 이르는 불상은 중앙에 석가여래 입상을 기준으로, 왼쪽은 제화갈라보살 입상, 오른쪽에 미륵반가사유상이 조각돼 있다. 석가여래 입상은 현재를, 제화갈라보살 입상은 과거를, 미륵반가사유상은 미래를 의미한다. ‘마애불’이란 자연 암벽이나 바위를 파고 들어가 양각으로 조각한 불상이다. 기원전 2세기~3세기 무렵 인도에서 제작하기 시작해 4세기 중엽 중국을 거쳐 7세기 전후에 백제 문화권을 중심으로 퍼져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삼존불(불상 3개)은 6세기~7세기 동북아시아에서 유행한 보편적 형식이다.

그러나 보주를 들고 있는 입상 보살과 반가보살이 함께 새겨진 것은 중국이나 일본, 고구려, 신라에서도 볼 수 없는 독특한 형식이라 더욱 의미가 크다. 또한 마애여래삼존상은 당시 중국과 백제의 문화 교류의 흔적으로 볼 수 있어서 큰 역사적 가치를 지닌다.

불상은 널리 알려진 대로 인자하고 따뜻한 ‘백제의 미소’가 일품이다. 빛의 방향, 각도에 따라 다르게 보인다. 고요한 숲 속에서 불상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그 풍부한 표정에 몰입돼, 마치 살아 숨 쉬고 있는 착각마저 든다.



- 1 백제 후기 무화유산인 국보 제84호 서산 용현리 마애여래삼존상.
- 2 조선시대 지방관서에서 정무를 보던 해미읍성의 중심 건물인 동헌.
- 3 해미읍성은 보존상태가 좋은 조선시대 읍성이다.
- 4 맑은 날, 청허정에 서면 서해가 보인다.



이순신 장군도 머물던 조선시대 평성 해미읍성

마애여래삼존상이 있는 용현리에서 차로 20분 정도 달리면 매끈하게 쌓아올린 긴 성벽을 만나게 된다. 전북 고창읍성과 함께 가장 보존 상태가 좋은 조선시대 읍성인 해미읍성이다. 해미읍성은 사적 제116호이자 서산 9경 중 으뜸으로 친다. 지금은 흔적도 남아 있지 않지만 예전에는 성의 둘레에 탕자나무를 돌려 심었기 때문에 탕자성이라고도 했다.

읍성은 대개 지방 관청과 사람들이 사는 곳을 둘러싼 성을 뜻하나, 이곳은 병영성으로 서해안 방어의 군사적 중심지 역할을 했다. 선조 12년 이순신 장군이 10개월간 군관으로 근무한 곳이기도 하다.

성은 높이 5m, 둘레 1.8km의 성벽으로 되어있으며 동, 남, 서의 세 문루가 있으나 대부분 일제강점기에 크게 훼손됐다. 현재 동헌, 관아문, 책실, 객실, 동헌부속사, 청허정, 동문, 서문, 남문, 포루 2동 등 11동 관아 건물이 복원됐지만 여전히 공터가 더 많다.

건물의 면면을 살펴보면 피로 물든 역사가 여기저기 남아 있다. 조선시대 역사 뿐 아니라 우리나라 최대 천주교 순교



성지이기 때문이다. 특히 1866년 병인박해 때는 1,000여 명이 이곳에서 처형됐다고 한다. 2014년 내한한 프란치스코 교황이 방문하면서 해미읍성의 역사가 전 세계로 보도됐다.

성내는 약 20만 제곱미터(m²) 규모이다. 공원처럼 잔디밭이 펼쳐져 산책하기 좋다. 비교적 잘 보존된 진남문을 통과하면 동헌까지 이어지는 길이 시원하게 펼쳐진다. 이 길을 중심으로 왼쪽에는 전통 찻집과 음식점이 전통 가옥 형태로 들어서 있고, 오른쪽에는 당시 사용됐던 조선시대 무기가 전시돼 있다. 방문객을 가장 먼저 반기는 것은 회화나무다. 천주교 신자를 나뭇가지에 매달아 처형했던 나무로, 당시 처형과 고문에 쓰였던 철사의 흔적이 아직 남아 있다. 옥사에는 천주교인을 가두던 감옥과 형틀을 당시 모습대로 재현해 놓았다. 민속 가옥도 들어서 있다. 모두 초가집이나 당시 신분대로 나눠서 꾸며놓은 모습이 인상적이다. 관아로 쓰였던 동헌과 출장 온 관리가 사용했던 객사가 복원돼 있으며, 그 뒤로 이어지는 계단을 올라가면 맑은 날에는 서해 바다까지 바라볼 수 있는 정자인 청허정이 서 있다.

해미읍성의 야경은 한국관광공사의 야간 관광 100선에 선정될 정도로 아름답기로 유명하다. 지난해에는 취소됐으나 매해 10월이면 조선시대의 생활과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역사 축제인 서산해미읍성축제가 열린다. 올해 600주년을 맞이한다.

첫인상, 첫사랑, 등교 첫날, 입사 첫날, 첫눈, 첫걸음, 첫키스, 우리말엔 유난히 '처음'을 기억하는 단어가 많다. 그만큼 많은 사람이 '처음'이라는 말에 큰 의미를 부여한다는 뜻이리라. 어김없이 다가온 새해, 오프닝이 인상적인 영화가 있다. 화면을 뚫고 전해지는 에너지를 받아 2021년을 시작해 보는 건 어떨까. 애니메이션부터 SF까지 골고루 준비했으니 취향대로 골라 봐도 좋다.

뜨거운 안녕

오프닝이 인상적인 영화



업

2009 | 피트 닥터, 밥 패터슨 감독

눈물 지수 🌧️🌧️🌧️🌧️

영화가 시작한 지 5분 만에 눈물을 줄줄 흘렸다는 간증(?)이 이어지는 전설의 오프닝이다. <업>의 오프닝에서는 어릴 적 친구였던 엘리와 칼이 가정을 이루고 함께 늙어가는 모습이 약 5분간 압축되어 펼쳐진다. 두 사람이 함께하는 삶의 다양한 순간들을 보고 있노라면 아직 경험하지도 않은 생의 희로애락이 주마등처럼 스쳐감과 동시에 행복과 서글픔이 느껴진다. 이런 인생의 동반자를 만난다는 건 삶의 가장 큰 행운이 아닐까.

라라랜드

2016 | 데미안 셔젤 감독

월요일 퇴치 지수 🌈🌈🌈🌈

2시간 남짓한 러닝 타임 중 고작 몇 분의 지분을 갖는 오프닝의 역할은 명확하다. 짧은 시간 안에 스크린 속 이야기로 관객을 훑 끌어당기는 것. <라라랜드>의 오프닝만큼 이 역할에 충실한 영화가 또 있을까. 뜨거운 한여름의 고속도로, 교통 체증으로 늘어선 차들을 배경으로 댄서들의 화려한 군무와 노래를 듣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몸이 들썩인다. 이들이 부르는 노래 제목은 '또 다른 날의 태양'(Another day of sun). 어느 울적한 월요일에 보면 제목처럼 내일의 태양이 호랑이 기운을 가져다 줄 것 같다.



드라이브

2011 | 니콜라스 윈딩 레프 감독

야간 드라이브 지수 🚗🚗🚗

무표정하고 과묵한 남자(라이언 고슬링)가 차를 타고 LA 밤거리를 질주한다. 뒷좌석엔 막 가게를 던강도 둘이 타고 있다. 경찰의 추적을 여유롭게 따돌리는 걸 보니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다. 심장 박동 소리 같은 배경 음악과 묵직한 자동차 엔진 소리, 화려한 LA 야경이 어우러져 진한 마초의 향을 풍긴다. 떠돌이 인생을 살던 남자의 진부한 이야기가 니콜라스 윈딩 레프 감독의 연출 마법 덕분에 스타일리시하게 다시 태어났다.

인 디 에어

2009 | 제이슨 레이트만 감독

비행 욕구 지수 ✈️✈️✈️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며 회사를 대신해 직원에게 해고를 통보하는 해고 전문가 라이언(조지 클루니). 그의 삶의 모토는 '사람은 결국 혼자 죽는다'. 라이언의 꿈은 항공 마일리지를 모아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플래티넘 회원이 되는 것이다. <인 디 에어>의 오프닝엔 하늘에서 본 여러 도시가 그림처럼 담겨 있다. 영화는 그렇게 공중을 떠도는 라이언에게 계속해서 착륙을 권한다. 외딴 섬처럼 혼자 살아온 그에게 사람들과 부대끼는 삶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이언은 조금씩 관계를 맺고 나아간다. 그 노력들이 모여 플래티넘 인생이 되는 것일 터. 그런 라이언을 진심으로 응원한다.



- 1 드라이브
- 2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 3 인 디 에어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2013 | 벤 스틸러 감독

여행병 유발 지수 🏠🏠🏠🏠

빈약한 숫자로 가득한 가게부를 정리하던 월터(벤 스틸러)는 출근길 전철역에 앉아 뜬금없는 상상에 빠진다. 슈퍼 히어로처럼 날아올라 옆 건물 창문으로 뛰어 들어 짝사랑하는 같은 회사 직원인 셰릴(크리스틴 위그)의 강아지를 구하는 공상 말이다. 시도 때도 없이 백일몽에 빠져 멍하게 셰릴과 함께 있는 장면을 상상하는 그의 모습은 다른 사람이 보기엔 웃음거리일 뿐이다. 어느 날, 잡지의 마지막 표지가 될 사진작가 손의 25번 컷을 찾아 월터가 용감하게 세상에 한 발씩 내딛는다. 그때마다 그의 상상은 말 그대로 현실이 된다. 지구를 한 바퀴 돌아 손을 찾고 마침내 25번 컷을 확인한 순간, 월터의 얼굴엔 더없는 자신감이 넘친다.

PL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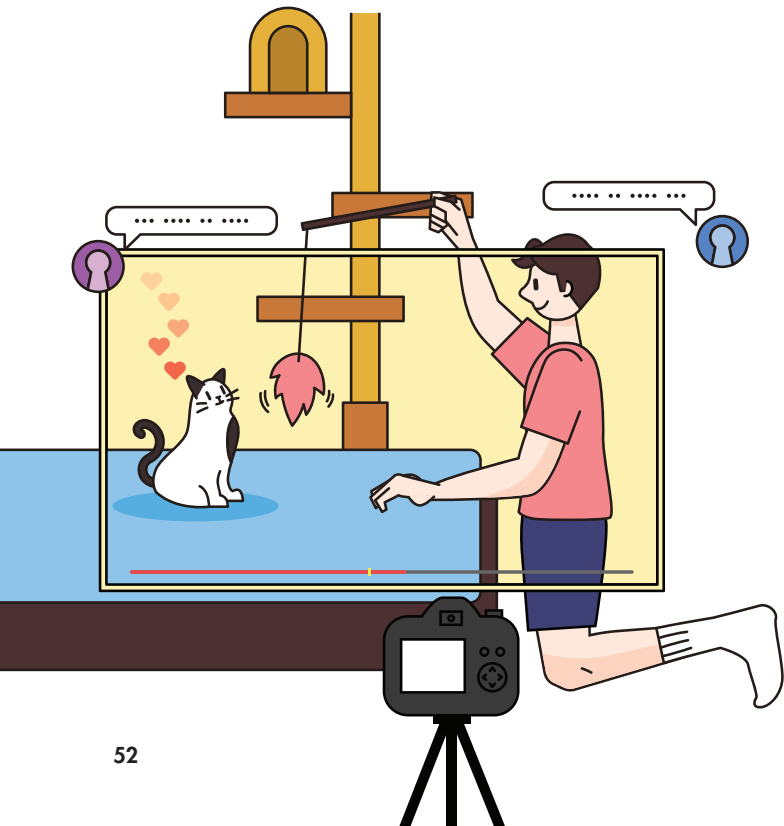
<스타워즈> 시리즈의 오프닝

<스타워즈>를 안 본 사람이 있어도 <스타워즈>의 영화음악과 오프닝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터. 별이 가득한 검은 우주를 배경으로 익숙한 문구가 등장한다. '옛날 옛적 멀고 먼 은하계에...(A long time ago in a galaxy far, far away)'. 이윽고 <스타워즈>의 배경을 친절하게 설명하는 노란색 글자가 위로 스크롤되며 화면을 가득 채운다. 이 오프닝은 수십 년 동안 여러 매체에서 패러디되며 <스타워즈>의 시그니처 장면으로 자리잡았다.

예쁘고 귀여운 내 자식이라면 자꾸만 사랑하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 반려동물도 마찬가지다. 유튜브에도 수많은 팬을 몰고 다니는 반려 동물 채널이 등장한 지 오래다. 동물이 목욕하고 뛰어노는 평범한 장면이지만 보고 있노라면 괜히 마음 한 구석이 몽글몽글해진다. 동물과 사람이 서로에게 아낌없이 베푸는 사랑의 힘 때문이 아닐까. 보기만 해도 행복해지는 랜선 슈퍼스타 반려 동물, 아이들을 탄생시킨 유튜브 채널을 소개한다.

※각 구독자 수는 2020년 12월 기준.

귀여움 한도 초과 랜선 슈퍼스타 반려 동물



▶ 수리노을 SuriNoel 구독자 196만 명



고양이 유튜브 채널의 시조격인 채널이다. 스코티시폴드 아빠 고양이 노을과 스코티시 스트레이트 엄마 고양이 수리 그리고 이들의 첫째 딸 라온, 둘째

아들 이즈, 막내아들 소울까지 무려 고양이 다섯 마리가 부부 집사와 함께 사는 모습을 기록한다. 10년 넘게 운영한 채널인 만큼 골수팬도 많다. 그동안 수리와 노을은 새끼 고양이 세 마리를 출산했고, 부부도 어느덧 아이 둘을 두었다. 집사 부부의 두 아이가 고양이들과 함께 지내는 모습은 그야말로 흐뭇하다.

©유튜브 채널 수리노을 SuriNoel

▶ **추천 영상** 집사 부부의 첫 아기가 태어났을 때, 아기를 탐색(?)하는 고양이들의 반응을 관찰하는 재미가 쏠쏠하다. 고양이들의 반응이 제각각 다르기 때문. 매주 라이브 방송도 진행하고 있으니 고양이와 함께 힐링하고 싶은 분이라면 알람 설정 필수!



▶ 짱절미 zzangjeolmi 구독자 13.8만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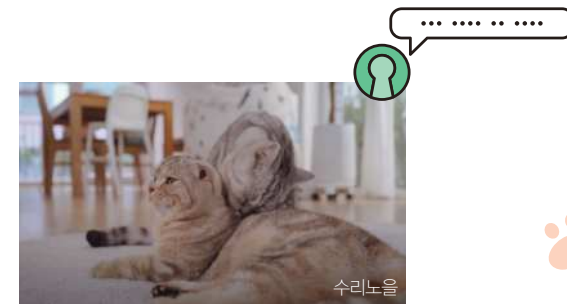


요즘 SNS에서 가장 유명한 개는 단연 '인절미'다. 여러 종의 조상을 두었을 것으로 추측된다는 '시고르자브종' 인절미는 2018년 여름, 사과 과수원 도랑에 빠

지면서 주인인 절미언니를 만났다. 절미언니의 아버지와 아버지 친구가 도랑에서 건져냈고 절미언니가 목욕을 시키기 위해 인터넷에 글을 올리면서 인절미는 일약 스타로 떠올랐다. 현재 짱절미 인스타그램 계정의 팔로우 수는 71.1만 명, 유튜브 구독자는 13.8만 명으로 어느 인플루언서 못지않다. 인절미의 하루는 꽤 바쁘다. 사과 밭을 산책하거나 사과 먹는 ASMR 영상도 찍어야 하고, 나물 캐는 절미언니의 엄마를 따라 나서기도 한다. 뛰놀다가 마시는, 근처 산에서 내려오는 1급수는 시골 개가 누릴 수 있는 특혜다.

▶ **추천 영상** 첫눈이 내린 날, 정신을 놓고 뛰노는 인절미를 보고 있으면 하루의 묵은 스트레스가 송두리째 날아가는 기분이다.

©유튜브 채널 짱절미



▶ 달려라 달리 구독자 21.1만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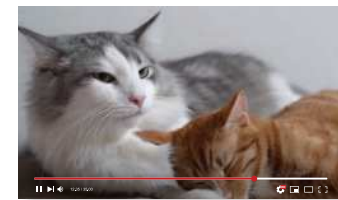
달리의 주인은 2013년 오랜 시간을 함께한 반려견을 먼저 보내고 힘들어하고 있었다. 그러던 차에 동물병원에서 다리를 다친 채로 버려진 달리를 만났

다. 달리의 다리를 절단해야한다고 하자 전 주인이 치료를 포기하고 버린 것이다. 포메라니안인 달리는 구름처럼 보송보송한 하얀 털이 특징이다. 달리는 미국과 유럽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으며, 2017년에는 인천국제공항의 동물 최초 명예홍보견이 되었다. 지금도 달리의 이력서에는 스펙과 경험이 쌓이는 중이다. 특히 달리의 여행 영상은 반려 동물과 해외여행을 고민하고 있는 이들이 참고할 만하다.

©유튜브 채널 달려라 달리

▶ **추천 영상** 미국 뉴욕 센트럴파크 잔디밭에서 배를 깔고 정신없이 잠든 달리를 보고 싶다면 이보다 더 늘어진 개 팔자가 있을까 싶다. 호텔 직원과 뉴욕 경찰에게도 인기 만점인 달리, 글로벌 진출도 고려해볼 만하다.

▶ 밀키복이탄이 MilkyBokiTan 구독자 173만 명



'밀키복이탄이' 채널의 주인공은 사모예드 밀키와 노르웨이 숲 광복이, 치즈태비 코숏 탄이다. 탄이는 최근에 입양한 반려묘이고, 밀키와 광복이는 터줏

대감이지만 셋은 잘 어울려 노는 가족이다. 이 채널엔 유독 해외 팬들이 많다. 순한 밀키와 '개냥이' 같은 광복이가 군소리 없이 목욕하는 영상을 보며 왜 우리 집 개와 고양이는 목욕할 때 저렇지 않냐고 푸념하는 댓글을 종종 볼 수 있다.

©유튜브 채널 밀키복이탄이 MilkyBokiTan

▶ **추천 영상** 지금은 많이 자랐지만 아기 고양이 탄이가 막 입양되어 집에 왔을 때, 그 하찮고도 귀여운 모습을 보고도 미소 짓지 않은 자, 유죄!

바야흐로 비타민 전성시대다. 종류나 복용법에 관한 정보가 넘치다 보니 무엇을 믿어야 할지도 모르겠다면 여기를 주목해 보자. 비타민을 올바르게 섭취하며 건강을 지키는 법을 소개한다.

즐거로운 비타민 생활

비타민D, 광합성이 최선의 솔루션

비타민D는 지용성 비타민으로 대장과 신장에서 인체에 필요한 칼슘을 흡수시키는 역할을 한다. 때문에 비타민D가 부족하면 체내 칼슘 농도가 낮아지고 이는 부갑상선 호르몬 분비를 촉진시킨다. 이때 비타민D가 규칙적으로 인체에 공급되지 않고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 뼈에서 칼슘이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골다공증을 유발한다. 또한 면역체계에도 악영향을 끼쳐 각종 알레르기 및 자가 면역 질환을 일으킨다. 비만, 당뇨, 각종 암, 구루병, 안짱다리 등이 비타민D가 부족하면 나타나는 질병이다.

비타민D는 주로 계란 노른자, 연어, 고등어, 참치, 갈치, 육류의 간, 우유, 콩, 마가린 등에 들어있지만 매우 소량이기 때문에 음식만으로 충분한 양을 섭취하기는 어렵다. 부족한 비타민D를 보충하는 가장 빠르고 간단한 방법은 햇빛을 쬐는 것. 겨울철에 적당한 야외 활동이 필요한 이유다. 특히 노년층은 비타민D를 합성하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하루 20분씩 일주일에 3회~4회 정도 가볍게 산책하면서 광합성하는 것이 좋다.

비타민A, 과잉 섭취하면 독

한창 북극을 개척하던 시절, 탐험가들은 북극곰을 사냥해 허기진 배를 채우고 했다. 이들은 부족한 영양을 채우기 위해 간을 비롯한 내장을 알뜰하게 나눠 먹었는데 빠르게는 몇 시간 후부터 몸에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몇몇 사람은 두통, 설사, 어지러움, 탈모와 피부 벗겨지는 증상을 보이다가 심하면 사망하기도 했다. 나중에 밝혀졌지만 이들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바로 비타민A 중독이다. 먹이사슬의 최상층인 북극곰의 간에는 그동안 다른 동물을 포식하며

쌓인 비타민A가 농축되어 있었고, 지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에 몸 밖으로 배출도 어려워 이를 먹은 사람들에게 중독 증세가 나타난 것이다.

비타민A는 생체막 기능을 조절하기 때문에 결핍되면 주로 눈이나 상피조직과 관련한 증상이 나타난다. 야맹증이나 안구건조증이 대표적이다. 안구 점막뿐 아니라 피부와 몸 안의 각종 점막이 약해지면 저항력 감소로 이어져 세균 감염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

비타민A는 녹색채소, 간, 우유, 계란, 생선 등에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 음식 섭취로 부족해 추가로 복용해야한다면 의사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 특히 임산부가 과용하면 조산이나 기형아 출산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비타민B, 세포와 신진 대사 도우미

비타민B는 단일 비타민이 아닌 복합체로 구성된다. 수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에 몸에 축적되지 않고 배출된다. 대표적으로 비타민B1(티아민), B2(리보플라빈), B3(나이아신, 니코틴아마이드), B9(엽산, B12(코발라민) 등이 있다. 비타민B군은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세포와 신진대사에 도움을 주며, 피부와 근육 조직을 유지시키고, 혈구와 세포 성장에 영향을 끼친다. B1 티아민은 효모와 곡류에 많이 함유되어 있으며 결핍되면 각기병을 유발한다. 통곡물이나 시금치 같은 잎채소, 버섯, 아몬드 등에 많이 함유된 비타민은 B2 리보플라빈이다. 대표적인 결핍 증상은 구내염, 설염, 인후통 등이다. B9 엽산은 신경 세포를 만들고 태아의 성장과 발달에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임신을 계획하고 있거나 초기 임신 부라면 이를 미리 섭취하는 것이 좋다. 또한 엽산은 요리 과정에서 쉽게 파괴되기 때문에 따로 먹는 것이 좋으며 고혈압, 심장 질환 환자에게도 도움이 된다.



2월 10일은 문화재 방재의 날이다. 이미 10년 전에 제정됐지만 이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Safety Day에서는 우리가 모르고 지나치기 쉬운 안전과 관련한 기념일을 짚어보며 모두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고자 한다.

2월 10일 문화재 방재의 날



문화재청은 송례문 화재 이후 문화재 현장별 방재시스템 구축과 전문경비원 배치에 초점을 맞췄다.



송례문 화재 발생

2008년 2월 10일, 국보 1호 송례문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믿을 수 없는 일이었다. 전 국민이 안타깝게 지켜보는 가운데 소방당국의 진압으로 처음에는 불길의 어느 정도 잡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이내 불이 다시 살아나면서 송례문은 완전히 불길에 휩싸였다. 이 사고로 송례문의 상당 부분이 불에 타고 말았다. 토지 보상에 불만을 품은 70대 노인이 저지른 방화였다. 2년 전에도 같은 이유로 창경궁에 불을 지른 적이 있었던 그는 결국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문화재 방재의 날’ 제정

사고 발생 3년 후인 2011년, 문화재청은 송례문 화재가 발생한 2월 10일을 문화재 방재의 날로 지정했다. 문화재 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취지였다.

매년 2월 10일에는 서울소방재난본부와 중부소방서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합동 소방훈련을 한다. 재난 대응 지침에 따라 화재 신고와 관람객 대피, 소방차 출동 화재 진압 훈련 등을 하면서 실전 대응력을 높이고 있다.

송례문 관리도 강화했다. 송례문 주변에 관리소를 만들고 CCTV를 통해 24시간 경비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열을 감지해 온도가 높아지면 화재로 인식하고 알려주는 광센서 감지기와 불꽃 감지기 등 자동 화재 탐지설비도 설치했다.

문화재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재난 안전 의식을 확대하기 위해 청소년과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각종 공모전을 실시하기도 한다.

‘국보 1호’ 논란

그러나 한쪽에서는 국보 1호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송례문이 우리의 대표적 문화재로서의 상징성이 부족하고 일제의 잔재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여기에 화재 이후 복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국보 1호의 가치가 사라졌다는 의견까지 더해지면서 논란은 20년 넘게 지속되고 있다.

국보 1호로 새롭게 지정할 문화재를 결정하는 일은 쉽지 않다. 때문에 문화재 지정번호 제도 자체를 폐지하려는 움직임도 있었다. 하지만 각종 표지판과 교과서, 안내서 등을 교체하는 데 최대 451억 원에 달하는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돼 이 방안은 백지화된 상태다. 송례문 화재 사고 이후에도 크고 작은 문화재보호법 위반 행위는 계속되고 있다. 만취한 대학생들이 첨성대에 무단 침입한 일도 있었고, 한 운전자가 높이 10m의 고분 위에 SUV를 주차해 경주 고분을 훼손하기도 했다. 한 번 훼손된 문화재는 복원이 어려운 만큼 미래 세대를 위해 보존에 힘써야 한다. 2월 10일을 문화재 방재의 날로 제정한 이유를 잊어서는 안 된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무생물 표면에서 최대 9일까지 생존할 수 있다고 한다. 사람들이 많이 만지는 물건이나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를 조심해야 하는 이유다. 여러 사람이 함께 쓰는 사무실도 예외는 아니다. 사무실 감염병 예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숨은 위험 찾기

생활 안전:
감염병 예방

QUIZ

오른쪽 그림에 회의실에서 바이러스를 전파할 수 있는 위험 요인들이 숨어있다. 4개 항목 가운데 3개의 위험을 찾아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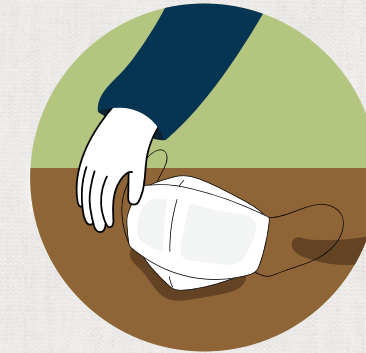


위험해요



1

마스크가 접힌 상태로 사용하는 건 올바른 착용법이 아니다. 먼저 마스크의 접힌 부분을 위아래로 펴고 고무줄을 귀에 건 뒤 최대한 얼굴 면과 밀착되게 눌러준다. 마스크의 턱 부분도 최대한 밀착해 호흡에 맞춰 마스크가 위아래로 움직이지 확인해야 한다.



2

마스크를 보관할 때 바깥면이 겹으로 오게 해서 끈 한쪽을 고리에 걸어두는 것이 좋다. 통풍이 잘되는 곳 또는 보관함에 두거나 종이 가방 안에 넣어두는 방법도 좋다. 마스크 내부가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 깊은 관리가 필요하다.



3

회사 탕비실은 다양한 사람이 사용하는 장소인 만큼 커피머신이나 주전자 등 공용 물건을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한다. 특히 커피를 탈 때 공용으로 사용하는 티스푼을 깨끗하게 관리해야 한다. 공용물품을 사용한 뒤에는 손 소독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안전해요



4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채기할 때 입을 가리는 것은 공중보건을 위한 필수 행동이다. 재채기를 하면 세균이 포함된 분비물이 입 밖으로 배출된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발표에 따르면 이 분비물은 1.8m 이상 날아가며 분비물이 작을수록 더 멀리 비산한다고 한다. 감기를 비롯해 공기 중으로 감염될 수 있는 질병이 있는 사람이라면 재채기를 할 때 반드시 입을 가려야 한다. 손으로 입을 가리면 재채기 분비물이 묻은 손으로 손잡이 등을 만져서 바이러스를 전파할 수도 있으므로 손수건이나 팔뚝으로 입을 가리는 것이 좋다.



01

01 김병숙 사장, '대한민국 CEO 명예의 전당' 3년 연속 환경경영 우수 CEO 선정

김병숙 한국서부발전 사장이 작년 11월 18일 서울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열린 '2020 대한민국 CEO 명예의 전당' 시상식에서 3년 연속으로 환경경영 부문 우수 CEO로 선정됐다.

2018년 3월 제8대 대표이사로 취임한 김병숙 사장은 정부의 친환경 에너지 전환 정책을 선제적으로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CEO 환경경영 방침과 'Eco-Friendly로 지속가능 경영 실현'이라는 환경비전을 수립해 대내외에 공표했다.

이에 따라 한국서부발전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33% 감축, 미세먼지 88% 감축, 부산물 재활용 100% 달성 등 도전적인 환경목표를 설정했다. 목표 달성을 위해 신기후체제 선도, 환경오염 물질 배출 제로화, 자원순환발전소 구현, 환경을 통한 공익가치 구현 등 4대 전략과제와 16개 세부 이행계획을 수립해 저탄소·친환경 경영을 수행하고 있다.



02

이뿐만 아니라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25% 달성을 위한 '신재생 3025 로드맵'을 수립해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등 저탄소 에너지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김병숙 사장은 "지속가능한 친환경 발전소로의 전환을 위해 저탄소·친환경 기술에 대한 개발과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기후위기에 대응한 환경경영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02 국제품질보임조대회서 품질혁신 우수성 입증

한국서부발전은 지난 12월 2일부터 3일까지 방글라데시 다카에서 개최된 '2020 국제품질보임조대회'에 온라인으로 참가, 최고상을 수상했다. 올해로 45회째를 맞이한 국제품질보임조대회는 각 나라의 품질혁신활동을 공유하고 품질개선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는 정보 교류의 장이다. 코로나19 감염과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치러진 이번 대회에는 세계 11개국 299팀,



03

1,000여 명이 참가해 열띤 경쟁을 펼쳤다.

한국서부발전은 6개 참가팀 중에 5개 팀이 대회 경쟁부문 최고상인 플래티넘 상을 받았고, 1개 팀은 금상을 수상하며 국내 출전 기업 중 최고 성적을 거뒀다.

03 남공주산단에 천연가스 발전소 건설

한국서부발전은 지난 11월 30일 공주 시청 집현실에서 공주시와 충남 공주시 검상동에 위치한 남공주일반산업단지에 천연가스 발전소를 건설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병숙 한국서부발전 사장과 김정섭 공주 시장을 비롯해 이준은 공주시의회 의장, 박희성 계룡건설 개발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한국서부발전은 2023년부터 2028년까지 7,000억 원을 투자해 남공주산업단지 9만 9,000㎡ 부지에 500MW급 천연가스 발전소를 건설한다. 발전소가 건설되는 동안 총 15만 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04

04 지역사회공헌 인정 받아 보건복지부 표창

한국서부발전은 지난 11월 30일 서울 용산 드래곤시티호텔에서 열린 '2020 지역사회공헌 인정의 날' 행사에서 우수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2019년 처음 시행된 지역사회공헌 인정의 날 행사는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주관 아래 지역 내 비영리단체와 협력해 지역사회 문제 해결과 사회공헌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기관의 활동을 격려하는 제도다. 2020년에는 265개 기관과 기업이 지역사회공헌 노력을 인정받았다.

한국서부발전은 본사와 전 사업소가 2019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지역사회공헌 노력을 인정받게 되었다.

05 어촌마을 사용설명서 제작 지원

한국서부발전은 지난 11월 20일 국민디자인단 활동의 일환으로 '청산마을 사용설명서' 제작을 지원했다.



05

한국서부발전은 2020년 2월부터 태안군, 한양여대, 어촌어항공단, 충남어촌특화지원센터 등과 함께 지역공동체 회복에 나섰으며 그 일환으로 청산1리에 거주하는 귀어·귀촌인과 예비 귀어·귀촌인을 위한 마을설명서를 제작했다.

특히 위커힐호텔 최주연 요리사와 협력해 청산마을의 특산물인 감태, 바지락, 낙지 등을 활용한 음식요리법을 개발했다. 요리 과정을 담은 레시피북을 통해 지역 특산물의 판로 개척과 음식을 통한 관광자원 개발에 나설 계획이다.

06 국립과천과학관과 업무협약 체결, 폐지된 발전설비가 에너지 전시물로 재탄생

한국서부발전과 국립과천과학관은 지난 12월 10일 발전 및 에너지 분야의 전시와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유기적으로 협력하기 위한 '사회공헌 및 과학 대중화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폐지된 발전설비를 활용한 과학 대중화 사업 추진, 에너지 문제에 대한 국민의 인식



06

전환을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향후 발전 및 에너지 분야 국민적 이해를 제고하기 위한 전시 구역 설치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취약·소외계층 대상 교육·문화 혜택 확대 등 사회공헌사업 추진, 기타 양 기관의 기능에 부합하는 사회적 가치 실현 및 과학 대중화 사업 등에 나서기로 했다. 우선 한국서부발전은 1994년부터 2017년까지 26년간 운영하다가 폐지한 평택1복합 발전소 설비를 과천과학관에 기증·전시한다. 또한 과학관 내 발전 에너지 전시구역을 조성해 전기·에너지를 주제로 가스터빈 주요부품을 활용한 전시와 기록자료 등을 보존할 계획이다.

향후에는 발전소 주변 취약·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두 기관이 협력해 지역사회공헌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할 예정이다. 발전소 주변 과학·문화 사각지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과학관 관람 기회를 제공하고 찾아가는 과학관, 과학희망캠프 등 특화된 과학·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07



08



09

07 새만금 그린수소 밸류체인 구축

한국서부발전은 지난 11월 19일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개발공사, 현대자동차, 현대엔지니어링, 현대차증권, LG전자, 수소에너젠 등 7개 기관과 서울 용산구 드래곤시티호텔에서 '그린 수소 밸류체인 구축을 위한 공동연구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정부의 수소경제 정책에 적극 부응하는 동시에, 세계 최대 규모의 재생에너지 발전단지인 새만금 지역에 '그린수소 밸류체인 구축'을 통한 그린수소의 확대와 관련 산업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이다. 한국서부발전은 7개 기관과 재생에너지와 수소를 연계한 사업 타당성 조사에 착수한 후 실증 사업을 통해 대규모 사업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08 하반기 적극행정 기어 국무총리상 수상

한국서부발전은 지난 11월 18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 공동 주관 '2020

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본선에서 정부 정책에 부응한 점을 인정받아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2016년 처음 시작된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연대회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굴해 그 성과를 국민들과 공유하기 위한 취지로 매년 시행되고 있다.

한국서부발전은 본선에서 '불용석탄을 활용한 자원순환소재 개발을 통한 친환경 그린모델 창출' 사례를 발표했다. 평가심사단으로부터 축산악취 등 지역사회 문제점 해결 노력에 기여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09 2020 협력기업 SQM 상생 페스티벌 개최

한국서부발전은 지난 12월 16일 최일선 발전 현장에서 묵묵히 자신의 직무에 최선을 다하며, 우수한 성과를 이룬 협력기업과 소속 유공자를 선발해 포상하는 '2020 협력기업 SQM(안전·품질·정비) 상생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2020년 처음 개최된 'SQM 상생 페스티벌'은 2019년까지 부서별로 진행한 협력기업 포상을 일원화한 것이다. 한국서부발전은 안전·품질·정비 분야별로 우수 성과를 낸 직원과 기업을 포상하고, 분야별 우수사례를 책자로 발간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정부의 코로나19 확산 방지 지침에 따라 태안, 평택, 서인천, 군산 발전본부에 '찾아가는 시상식'으로 진행됐다. 35개 협력사를 대상으로 단체부문 우수협력사 11곳과 개인부문 우수직원 12명을 선정해 상패와 포상금을 전달했다. 안전 분야 최우수상은 '한전KPS(주) 태안사업처'가, 우수상은 '옵티멀에너지서비스(주) 평택사업소'와 '한전KPS(주) 평택사업소'가 수상했다. 품질 분야에서는 단체부문 최우수상에 (주)금화PSC 서인천사업소, 옵티멀에너지서비스(주) 태안사업소가 선정됐다. 한국발전기술(주)의 김경호 사원은 '노내 와이어비게 시공 방법 개선 및 최적화 사례'를 인정받아 개인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서부공감 1+2월호 이벤트

퀴즈를 맞추면 복이 와요!

2021년 새해를 맞이해 한국서부발전 사보 <서부공감>이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서부공감>을 꼼꼼히 읽은 분이라면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1. '변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이란 뜻으로 지난해 2회를 맞이한 대한민국 사회혁신 ○○○메이커 시상식.
2. 한국서부발전의 윤리와 인권을 위해 일하는 사회적가치추진실 ○○○○부.

참여 방법

QR코드를 찍고
구글폼에 정답 입력하기



참여 기간

2021년
2월 28일까지

당첨자 발표

2021년 3월 5일
한국서부발전
블로그 및 SNS

경품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기프트콘 (50명)



K-POP

K-FOOD

K-CULTURE

이제는 K-그린뉴딜!

전세계 음악과 음식, 문화를 선도하는 KOREA

이제 K-그린뉴딜로

새로운 글로벌 환경과 경제를 선도합니다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확보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 지역 개발에 이르기까지

한국서부발전이 K-그린뉴딜과

함께 하겠습니다



K-
GREEN
NEW
DEAL



한국서부발전 | 주 |
KOREA WESTERN POWER CO., Ltd.